

갈라디아서에서 약한 자의 자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신약학 전공

김 성 조

갈라디아서에서 약한 자의 자유

지도 유 상 현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신약학 전공

김 성 조

김성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3년 6월 일

감사의 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린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히 공급해 주셨다.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식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더욱 노력하게 하셨고, 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하게 하셨다.

나의 논문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드린다. 신약학을 연구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논문의 내용과 형식을 꼼꼼하게 지적하여 논문을 잘 쓰도록 지도해 주신 유상현 교수님, 논문의 일관성을 엄격하게 가르쳐 주신 서중석 교수님,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고쳐 주시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지적해 주신 김선정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과정(Th.M.)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새동산침례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드린다.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이보혁 목사님, 김강식 목사님, 엄용치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서울한강지방회 목사님들에게 감사 드린다. 나와 개척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준 죽변침례교회 엄일용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 드린다. 나의 가족을 친절하게 진료해 주신 연세복음의원 김기형 박사님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로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평하지 않고 학비를 준비해 준 사랑하는 아내 차미경, 건강하게 커 가는 나의 아이들, 창진과 경동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목 차

약 어 표	ii
국문요약	iii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
제 3 절 연구동향	6
 제 2 장 갈라디아 공동체의 구성원 분석	 21
제 1 절 강한 자 그룹	21
제 2 절 중도 자 그룹	32
제 3 절 약한 자 그룹	43
 제 3 장 여자의 자유	 51
제 1 절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여자의 자유	51
제 2 절 성령을 통한 여자의 자유	59
 제 4 장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	 67
제 1 절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	67
제 2 절 성령을 통한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	73
 제 5 장 결 론	 83
 참 고 도 서	 86
Abstract	93

ABBREVIATIONS

<i>Bib</i>	<i>Biblica</i>
<i>BS</i>	<i>Bibliotheca Sacra</i>
<i>CJ</i>	<i>Concordia Journal</i>
<i>CQ</i>	<i>The Covenant Quarterly</i>
<i>EQ</i>	<i>The Evangelical Quarterly</i>
<i>ET</i>	<i>The Expository Times</i>
<i>ETL</i>	<i>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i>
<i>JBL</i>	<i>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i>
<i>JSNT</i>	<i>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i>
<i>Int</i>	<i>Interpretation</i>
<i>Neot</i>	<i>Neotestamentica</i>
<i>NouT</i>	<i>Novum Testamentum</i>
<i>NTS</i>	<i>New Testament Studies</i>
<i>RE</i>	<i>Review and Expositor</i>
<i>RQ</i>	<i>Restoration Quarterly</i>
<i>SwJT</i>	<i>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i>
<i>TZT</i>	<i>Tübinger Zeitschrift für Theologie</i>
<i>WTJ</i>	<i>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i>

국문 요약

갈라디아서에서 약한 자의 자유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그의 서신을 보내면서, 강한 자 그룹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약한 자 그룹의 자유를 위해서 그의 생각을 썼다. 갈라디아 공동체에는 강한 자 그룹, 약한 자 그룹, 그리고 중도적 입장에 있는 중도 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한 자 그룹은 약한 자 그룹에게 율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였고, 약한 자 그룹은 율법준수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중도 자 그룹은 두 유형의 크리스천이 포함되어 있다: 율법을 준수한 크리스천과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는 약한 자들인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자유를 위한 방법으로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강한 자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는 유대화 된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지원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지원 받은 강한 자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 있는 약한 자 그룹에게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였다.

약한 자 그룹은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한 자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활동에서 제한 받았다. 강한 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게 지원 받는다면, 바울은 약한 자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에는, 여자의 자유를 묘사하는 몇 구절이 있다: 여자의 자유는 갈4:21-31에서 자유와 여자의 관계를 직접적 언어로 표현되고, 갈3:28에서 남성과 대등한 관계로 진술되는 곳에서 드러난다. 갈4:4-5에서는 여자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을 진술하여, 여자를 강한 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갈4:24에서 바울은 언약을 여자와 동일시하고, 갈4:26에서 ‘예루살렘’은 ‘자

유자’이고, 자유는 ‘어머니’라고 진술하여, 어머니로서 여자의 자유를 제시한다.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는 할례와 율법준수에 관련하여 진술된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는 강한 자 그룹에 의해서 할례와 율법준수가 강요되고 있었다. 강한 자 그룹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준수를 주장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은 할례와 율법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진술하여 이방인 크리스천을 지원한다.

강한 자로부터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이 자유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이다. 성령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강한 자 그룹과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었다(갈3:3). 강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므로 율법에 복종하기 위하여 외형적 의식인 할례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이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것을 진술한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자유는 바울의 사도직과도 관련된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이 제시한, 사도가 되는 기준에 바울이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도직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자유이다. 바울이 사도직을 확보하고, 약한 자 그룹이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이방 선교를 위한 바울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에 매이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을 바울은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심 되는 말 : 갈라디아 공동체, 자유, 강한 자 그룹, 할례, 율법준수, 약한 자 그룹, 여자, 이방인 크리스천, 성령, 바울의 사도직.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자유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리스도인은 삶과 신앙 생활 속에서 자유에 대하여 많이 언급한다. 자유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말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자유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유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분명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에서 말한 자유의 내용과 의도를 분석하여,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¹⁾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는 율법준수와 할례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라는 대립된 구조 속에서 자유를 말하였다. 브루스(F. F. Bruce)나 펑(R. Y. K. Fung), 그리고 마테라(F. J. Matera)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언급하여, 갈라디아서의 자유를 역시 종교적 이념 대립으로 보고 있다. 두 종교적 이념은 율법과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종교적 의미의 이념 대립은 갈4:22에서 ‘계집 종’과 ‘자유하는 여자’라는 비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계집 종’은 율법에 속한 그룹을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자유하는 여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룹이다. 브루스와 펑은 유대의 오랜 전통으로 지켜온 모세의 율법에 복

1) Hans Dieter Betz, *Galat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3. 이 책에서 벳츠는 갈1:2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는 진술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서신의 목적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갈라디아 공동체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종하는 데에서부터 자유를 언급하고 있으며, 마테라는 자유가 바울 서신의 공통된 입장이라는 말을 더 추가하고 있다.²⁾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갈라디아서가 크리스천 자유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마샬(Molly T. Marshal)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유를 지나치게 이념화하고, 자유를 신이 주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게 한다.³⁾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M. Luther)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죽음과 사탄의 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라고 언급한다.⁴⁾ 루터가 주장하는 자유도 역시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종교적 의미에서 자유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도 자유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소극적이고 수혜자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는 단순히 수혜자에게 주는 자유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두 대립 그룹이 심한 갈등 속에서 표현된 결과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⁵⁾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 두 대립 그룹의 갈등 속에서, 오랜 전통으로 유지되어 오는 그룹에 반대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그룹이 부상하고자 하는 관계를 갈라디아서에 진술하는 것이기도 하고, 큰 규모를 가진 그룹과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큰 규모의 그룹에 의존하는 그룹이 독립하고자 하는 대립 관계 속에서 자유를 갈라디아서에 진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바울 그룹과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이,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

2)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0), 226;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9), 216; Frank J. Matera, *Galatian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2), 180.

3) Molly T. Marshall, "Galatians 5:1, 13-14 : Free Yet Enslaved," *RE* 91(1994): 233.

4) Martin Luther, *Commentary on Epistle to the Galatians* (London: Fleming H. Revell Company, 1957), 442.

5) Molly T. Marshall, "Galatians 5:1, 13-14 : Free Yet Enslaved," 233; Hans Dieter Betz, *Galatians*, 89. 이 책에서 벳츠는 내부의 유대인 논쟁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내부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언급하여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리스천이 포함되어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든 크리스천에게 율법준수와 할례를 요구하는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는 진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종교적 이념의 대립 구도 속에서 갈라디아서의 자유를 연구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이념적이거나 그리스도가 주는 권위의 이전(移轉)과 같은 측면에서 벗어나서, 현실적 정황 속에서 자유를 연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약한 자 그룹이 처해진 정황과 약한 자 그룹이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가 크리스천 삶의 중심적 특성인 것을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겐츠(Frances T. Gench)의 언급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이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⁶⁾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크리스천의 삶과 자유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바울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약한 자의 자유를 연구하는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현실적 정황 가운데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었던 약한 자의 자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사회학적 해석방법으로 연구할 것이다. 19C 이후, 신약성서를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비평하여 왔다. 본문비평, 양식비평, 편집비

6) Frances T. Gench, "Galatians 5:1, 13-25," *Int* 46/3 (Jul, 1992): 291.

평 등을 통하여 신약성서를 더 잘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전의 비평들은 본문 속에서만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성서 내용의 역사성을 많이 잃었고, 성서의 의미도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웠다. 신약성서의 본문에서 더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제시된 사회적 정황을 연구하는 것이 제기되었다. 성서본문이 사회적 정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정황을 분석하는 것은 성서에서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바울 서신에서도 사회학적 분석이 바울 서신에 담겨 있는 바울의 의도와 서신 수신자의 사회적 정황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전달된 상황과 수신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관심, 갈등, 그리고 저자에게 영향을 준 집단과 상호작용에 대한 정황을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 사회학적 해석에 대하여 서중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학적 신약해석이란 신약성서 본문에 나타나는 사상들이나 행위들을 그 본문 배후를 이루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로마 제국 사회라는 폭넓은 사회적 준거틀 속에 위치시키거나,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작은 단위의 사회적 준거틀 속에 위치시킨 채 해석하려는 하나의 전망 혹은 상상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사회학적 신약해석의 관심은 성서 본문의 신학적·윤리적 진술들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진술들과 그것들의 사회적 상황들과의 관계에 있다.⁷⁾

단순하게 성서 본문의 신학을 이해하기보다는 본문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사회학적 신약해석이라는 서중석의 언급은 신약성서 해석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그 서신이 우선적으로 보내졌던 공동체

7) 서중석, 『복음서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97-398.

속에 있는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에 대한 다소 분명한 감각을 가질 때에만
- 그 공동체가 갈라디아서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던 삶의 세계를 포함해서
-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담고있는 문학적, 개념적, 그리고 언어학적 형식들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⁸⁾

사회학적 해석 이론에는 거시적 접근(macro approach), 미시적 접근
(micro approach), 중수준적 접근(meso approach) 등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고 서중석은 제시한다.

인간의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제어하는 사회 구조를 분석하는 거시적
(macro) 접근과 역으로, 사회 구조의 강제성에도 불구하고 각기 자율적으
로 행동하는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는 미시적(micro) 접근, 그리고 인간
행위와 사회 구조의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중수준적(meso) 접근이 있다.
곧 이 세 이론은 ‘나무’, ‘숲’, 그리고 ‘나무와 숲’에 각각 초점을 맞춘다.⁹⁾

서중석의 언급을 다음과 같이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시 사회학
이론은 규모가 큰 사회적 관계의 기본 패턴과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사회 구
조가 어떻게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반면, 미시 사
회학 이론은 개인이 어떻게 법적·정치적 체제와 같은 한 사회의 제도들을
포함하는 사회 구조를 창출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¹⁰⁾ 그러나 이 두 가지 접
근 방법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이 두 방법의 상호
작용을 연결시켜주는 접근 방법이 바로 중수준적 방법이다. 중수준적 방법에
대해 서중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8) Howard C. Kee, 『새 시대의 공동체』 서중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4.

9)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8-9.

10) *Ibid.*, 301-302.

거시적 접근에서 볼 때, 신약성서 저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입장에서는 신약성서 저자들의 역할과 자율성이 극소화된다. 미시적 접근에서 볼 때, 저자들이 공동체의 성격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그들의 역할과 자율성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중수준적 접근에서는 신약성서 저자들이나 그 안에 묘사된 주인공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공동체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들이다.¹¹⁾

본 연구는 사회학적 해석방법 중에서 중수준적 접근으로 할 것이다. 사회학적 해석방법에서 중수준 접근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성서본문 해석에서 중수준 접근은 신약성서 저자들이나 그 안에 묘사된 주인공들이 그들의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중수준 접근은 저자와 공동체, 저자와 공동체의 구성원간의 갈등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학적 해석방법 중에서 중수준 접근을 통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에 속하는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강한 자로부터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중수준 접근은,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속하는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의 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약한 자 그룹이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내용과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동향

11) *Ibid.*, 340.

(1) 강한 자에 대한 연구동향

본고에서 언급되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강한 자는 바울의 대적자, 혹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강한 대적자로 표현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대적자에 관한 논쟁은 주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분하여 지속되어 왔다. 이 외에도 대적자를 영지주의자로 보는 학자도 있지만, 대체로 대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종교의 차이에 따른 인종이 원인인 것으로 보아 왔다. 롱거넥커(R. N. Longenecker)는 대적자 논쟁이 현대 바울 연구가 튀빙겐학파의 바우르(F. C. Baur)에 의해서 제안됨으로써 1831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¹²⁾ 물론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울의 대적자는 유대화 된 유대인 크리스천이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그 이론은 수정되고 변화되어 바우르에 의해서 현대적 시각에서 대적자 논쟁이 시작된 것으로 롱거넥커는 보고 있다.¹³⁾

롱거넥커나 조오지(T. George)같은 학자들은 대적자 논쟁을 시대에 따라 언급하고 있다. 바우르로부터 시작된 튀빙겐학파의 대적자 논쟁, 튀빙겐학파에 반대하는 라이트푸트(J. B. Lightfoot)의 대적자 논쟁, 1919년에 “두 태도 이론(Two Front Theory)”을 제기한 뢰트게르트(Wilhelm Lütgert)와 그의 이론을 발전시킨 로페스(J. H. Ropes)의 대적자 논쟁 등으로 20세기 전반기에 주장되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뭉크(J. Munck)의 대적자 논쟁, 슈미탈스(W. Schmithals)의 대적자 논쟁, 1971년에 제기된 주윌(R. Jewett)의 대적자 논쟁이 있으며, 최근에는 롱거넥커(R. N. Longenecker), 브루스(F. F. Bruce), 펑(R. Y. K. Fung) 등이 대적자에 관하여 각각 주장을 제기하였다. 본 고에서는 대적자 연구동향을 시대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12)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lxxxix; Timothy George, *Galat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 30: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51.

13)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lxxxix.

이 ‘누구를 대적자로 이해하는가’하는 대적자의 대상에 따라 연구동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대적자를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입장에 있는 학자들이 가장 오래 되었다. 현대에 들어서 바울의 대적자에 관하여 가장 먼저 연구하였다고 보는 바우르 역시 바울의 대적자는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으며,¹⁴⁾ 크라운필드(F. R. Crownfield), 콜리(R. A. Cole), 한센(G. W. Hansen), 뢰데만(G. Luedemann)도 바울의 대적자를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다.¹⁵⁾ 최근에는 벅츠(H. D. Betz), 던(James D. G. Dunn), 러셀(W. B. Russell), 롱거넥커, 브루스 등이 대적자를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주장하고 있다.¹⁶⁾

바우르는 원시 기독교에 경쟁적인 두 그룹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파를 포함하는 베드로 그룹과 아볼로파와 연대하는 바울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베드로 그룹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마에 크리스천 공동체를 설립하였고, 고린도 공동체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에 대적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사도들도 베드로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유형과 절대 화해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반대하는 태도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우르는 바울의 대적자는 예루살렘의 열정적인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¹⁷⁾ 바우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이, 이방인 크리스천

14) *Ibid.*, xc, 중인. C. Baur, “Die Christuspartei in der Korinthischen Gemeinde,” *TZT* (1831): 61-206.

15) G. Walter Hansen, *Abraham in Galatians* (Sheffield: JSOT Press, 1989), 169; Gerd Luedemann, *Opposition to Paul in Jewish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99; F. R. Crownfield, “The Singular Problem of the Dual Galatians,” *JBL* 63 (1945): 491-500; R. A. Cole,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1), 26-27.

16) Hans Dieter Betz, *Galatians*, 49;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3), 9;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7), 26;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xcv;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31.

17)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xc, 중인. F. C. Baur, “Die Christuspartei in

에게 나아가려는 바울의 노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벳츠(H. D. Betz)는 바울의 대적자를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다.¹⁸⁾ 벳츠가 바울의 대적자를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이유는, 갈6:12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핍박을 피하는 그룹이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¹⁹⁾ 유대인 크리스천은 핍박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유대인 크리스천은 갈라디아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크리스천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치게 주장하여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벳츠는 생각하였다.

던(James D. G. Dunn)도 역시 유대인 크리스천이 바울의 대적자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⁰⁾ 던은 독특한 방법으로 바울의 대적자가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밝히고 있다. 갈3:6-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을 똑같이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도 적용하고 있다.²¹⁾ 이렇게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을 추켜세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천을 비하하게

der Korinthischen Gemeinde,” 61-206.

18) Hans Dieter Betz, *Galatians*, 49.

19) *Ibid.*, 316; Walter B. Russell III, “Rhetorical Analysis of the Book of Galatians, Part 1,” *BS* 150 (July, 1993), 349. 이 책에서 러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수사학적 표현을 한 것은 그의 대적자 유대인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할례에 반박하는 수사학의 이중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20)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9. 이 책에서 던은 바울의 대적자가 유대인인 것은 대적자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 할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에게는 중요한 의식일 수 밖에 없었다. 이 책 p. 9에서 던은 슈미탈스(W. Schmithals)의 논문을 통하여 유대교 크리스천이 바울의 대적자가 된 것은 유대인 크리스천이 영주주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주윌(R. Jewett)의 논문을 통하여서는 유대교 크리스천이 자유주의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W. Schmithals, “The Heretics in Galatia,” *Paul and the Gnostics* (Nashville: Abingdon, 1972), 13-64; R. Jewett, “The Agitators and the Galatians Congregation,” *NTS* 17 (1971): 209-12.

21)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65. 이 책에서 던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주는 축복도 유대교적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한다; H. D. Betz, *Galatians*, 142. 이 책에서 벳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반유대교적 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나 대적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은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유전되는데, 이 유전을 유대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방인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천을 유대인 크리스천보다 낮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던은 생각하였다.

러셀(W. B. Russell)은 갈2:14에서 유대인 크리스천이 바울의 복음을 쫓지 않고 있는 것을 바울이 대적자에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보아,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설교하는 복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유대인 크리스천임을 주장하고 있다.²²⁾ 러셀은 유대인 크리스천의 기원을 바리새파의 유대인 크리스천에 두고 있다.²³⁾ 행15:1, 5, 23, 24절에서 교회를 요동케하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진술되어 있음으로 행15장에서 ‘요동케하는 자’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요동케 하는 자’와 같은 기원을 갖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다. 행15:1, 5절에서 바리새인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고, 행15:23, 24절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이 있는 곳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포함하고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를 말하고 있음을 볼 때, 행15장에서 언급된 이방인 크리스천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속해 있고, 갈라디아 공동체의 유대인 크리스천은 바리새파이거나 바리새파와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이 러셀의 주장이다.

물론 행15:5절에서 ‘요동케 하는’ 바리새파 유대인 크리스천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서 갈라디아 공동

22)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26; Arnold J. Phillip, *Jewish Christianity in Galatians : A study of the teachers and their gospel* (Ann Arbor: UMI, 1991): 244. 이 책에서 필립은 유대인 대적자의 상태를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신비적인 사람, 둘째는 예수를 위대한 율법 선생으로 여기는 사람, 셋째는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 그들이다.

23)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26; Arnold J. Phillip, *Jewish Christianity in Galatians : A study of the teachers and their gospel*, 29; H. J. Schoeps, *Pau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82.

체의 대적자가 바리새파라는 것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바리새파를 진술하지 않았고, 누가 기사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진술된 바리새파의 정황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이 대적자를 비판하는 정황과 비교할 때에, 그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의 주장처럼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를 바리새파 유대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러셀이 언급한 바 있는 율법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그룹이 대적자이고, 이것이 강한 자의 태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의 대적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가 율법준수를 강조하는 강한 자 그룹이라는 측면에서 벳즈나 던의 입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의 대적자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학자는 뭉크(J. Munck)가 있다. 뭉크의 이론을 확장시킨 현대의 학자는 스텐달(K. Stendahl), 샌더스(E. P. Sanders), 라이트(N. T. Wright) 등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적-역사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바울 신학의 언약적 성격을 강조한다. 뭉크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직면한 문제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서 지쳐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²⁴⁾ 그러나 아직 3차 전도 여행을 나가지 않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지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뭉크의 견해대로 이방인 크리스천이 바울의 대적자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지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디아 공동체의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이방인 크리스천이 바울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울의 대적자가 유대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뭉크(J. Munck)는 바울의 대적자가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보고 있다.²⁵⁾ 뭉크가 바울의 대적자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24) J. Munck, *Paul and the Salvation of Mankind* (London: SCM, 1959), 89.

25) *Ibid.*, 89.

근거는 갈6:12-17절에 나오는 논쟁에서이다. 특히 6:13의 ‘할례 받은 자회’(the circumcised, oiJ peritemnovmenoi)는 할례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도처에서 할례를 받은 자나 현재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이므로 원래부터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벳츠는 oiJ peritemnovmenoi로는 대적자가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도 현재 할례 받는 상태에 있는 이방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오히려 벳츠는 행7:53절에 스테반의 설교에 나오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유대인으로 보아 유대인 크리스천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다.²⁶⁾ 대적자가 갈라디아 공동체의 내부에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대적자를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뭉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도 유대화 되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라디아 공동체에 유대인 크리스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뭉크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벳츠와 던, 러셀, 그리고 뭉크의 주장에서,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는 할례와 관련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는 유대인 크리스천이든지 이방인 크리스천이든지,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화 된 크리스천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대적자에게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당하는 약한 자 그룹은, 강한 자에게서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은 이방인 크리스천이다.

바울의 대적자는, 바울과 갈라디아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복종하고, 율법준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바울이 사도직에 관하여 말하였지만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대적자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미 유대화 된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 유대주의를 위해서 선동하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뭉크는 말한다. 이방인 크리스천은 이미 유대화 된 유대주의자였고, 그들은 모든 크리스천이 율법준수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요구했다고 뭉크는 생각하였다.²⁷⁾

26) Hans Dieter Betz, *Galatians*, 316.

갈라디아서에서 대적자를 영지주의자로 보는 입장이 있다. 슈미탈스(W. Schmithals)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의 대적자를 영지주의자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으며, 엘리스(E. E. Ellis)도 역시 바울의 대적자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²⁸⁾ 엘리스가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를 지적하는 것은, 대적자를 영지주의자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슈미탈스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의식적 종교행위와 비밀스러운 종교적 체계의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찾기 위해서 과거에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초기 영지주의자가 바울의 대적자라고 슈미탈스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²⁹⁾ 슈미탈스는 갈4:9에서 초등한 영을 바울이 진술하고, 갈6:13에서 갈라디아 교인 중에 현재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바울의 비난이 있는 본문을 드러냄으로써,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갈4:10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는 바울의 진술은 신과 연합하기 위하여 찾는 수단으로서 다양한 절기의 의식을 따르는 후기 영지주의를 회상하게 한다고 슈미탈스는 말한다.³⁰⁾

주월(R. Jewett)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의 대적자는 열심당 운동을 하는 열심당원이라고 주장한다. 주월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심당에 의해 자극된 유다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은 주후 40년 말에서 50년 초에 그들을 따르는 크리스천 중에서 율법적인 운동으로 압력을 가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과 교류한다는 의심을 피하는 것이었다. 유대인 크리스천은 이방인 크리스천의 할례는 열

27) J. Munck, *Paul and the Salvation of Mankind*, 89; 뭉크의 논문, “Jewish Christianity on Post-Apostolic Times,” *NTS* 6 (1960): 103-116.

28) E. Earle Ellis, “Paul and His Opponents,” *Prophecy and Hermeneutic in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78), 109-112.

29) W. Schmithals, “The Heretics in Galatia,” *Paul and the Gnostics*, 29.

30) *Ibid.*, 29.

심당의 보복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그들 자신들이 확신한 것으로 드러난다.³¹⁾

유대화 되어 유대의 율법준수와 할례를 강력하게 강조하는 열심당원도 역시 유대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적자를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열심당은 유대화되지 않는 이방인에게 무력행위까지 행사하였다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다른 점이다. 주월은 강력한 유대주의자가 바울의 대적자였다고 말하는 것이다. 주월은 바울의 열심당 대적자는 안디옥 사건(갈2:11-14)에서 처음 진술되어 있고, 나중에 갈라디아 공동체에 드러난다고 생각한다.³²⁾

지금까지 제시된 대적자 논쟁은 대체로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의 갈등에서 찾아지고 있으나, 단순하게 인종적 구분에 의해서 갈등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도 갈등의 내용이 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비록 바울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이거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 크리스천의 경우에도 강한 자 그룹과 대립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은 두 그룹간의 대결 양상을 진술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는 그룹의 구성원은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지만,³³⁾ 바울이 갈등의 표면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할례와 율법준수인 것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갈등은 인종적 원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준수와 할례에 있었기 때문에 브루스(F. F. Bruce)가 바울 그룹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1) R. Jewett, "The Agitators and the Galatian Congregation," 205.

32) Richard N. Longenecker, xciii.

33) Thomas D. Lea, "Unscrambling the Judaizers: Who Were Paul's Opponents?," *SwJT* 37/1 (Fall, 1994): 27. 리아는 바울의 진술을 통하여 대적자를 추론할 수 있다고 언급하여 대결하는 두 그룹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한 것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소개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할례는 부적절하고, 할례를 본질적인 것으로 다루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허용되지 않는다.³⁴⁾

브루스의 주장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대결하는 그룹은 인종적 그룹의 대결이라고 보기보다는 새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함께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인종적인 구분에 따라 대립하는 것보다는 강한 자 그룹과 바울 그룹을 포함한 약한 자 그룹 갈등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자유에 대한 연구동향

마틴(J. Louis Martyn)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유가 전체적으로 매우 큰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³⁵⁾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자유’라는 명사로 (2:4에서 한 번, 5:1에서 한 번, 5:13에서 두 번) 네 번 사용하였고, 동사로도 ‘자유케 하려고’(5:1) 사용하였고, 형용사로도 ‘자유’(갈4:22-31에 다섯 번)를 사용함으로써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를 중요한 항목으로 위치하도록 하였다. 마틴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자유’를 사용하는 바울의 의도가 수신자들이 자유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³⁶⁾ 갈라디아서를 독자들이 읽을 때에 바울은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서신이 쓰여진 것을 분명

34)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29.

35) J. Louis Martyn, *Galatians* (New York: Doubleday, 1997), 196.

36) *Ibid.*, 196.

하게 알 수 있도록 ‘자유’를 여러 번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틴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을 갈라디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부르신 새로운 창조주(the New Creator)라고 주장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새 창조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갈1:6; 롬4:16).³⁷⁾ 마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 활동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 모든 힘으로부터 ‘자유케’(갈5:1) 하는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하나의 개념도 아니고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여 소유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자유는 종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마틴의 말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유라는 의미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위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독특하다.³⁸⁾

롱거넥커(R. N. Longenecker)는, 바울이 유대인 크리스천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³⁹⁾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준수와 할례로 인하여 유대인 크리스천에 의해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대인 크리스천은 이방인 크리스천을 유대화 하고 있으며,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천의 유대화는 이방인 크리스천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하려고 자유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롱거넥커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롱거넥커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유대화 된 사람과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야만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자유를 유대주의로부터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한다.⁴⁰⁾ 인종적 관계 범주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롱거넥커의 주장은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롱거넥커가 말하고 있듯이 ‘유대화 된 크리

37) *Ibid.*, 485; Helen Doohan, *Paul's Vision of Church* (Wilmington, Delaware: Michael Glazier, 1989), 149-155.

38) J. Louis Martyn, *Galatians*, 447.

39)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23.

40) *Ibid.*, 217.

스천’ 혹은 ‘유대주의자’는 유대인 크리스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헨드릭센(W. Hendriksen)은 바울이 진술하는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이고,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의식적 복종으로부터 자유라고 말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⁴¹⁾ 헨드릭센은, 바울이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자유는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이며(갈3:13, 22-26; 4:1-7), 살게 하는 것을 죽게 하는 율법의 무능력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포함하고 있다(갈3:21). 더 나아가 자유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이고 의식적(cultic)인 율법을 엄격히 복종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다.⁴²⁾ 율법을 지키면 살아가는 것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복종하는 행위는 저주인 것으로 보는 헨드릭센의 주장은 타당하게 받아들여 진다.

조오지(T. George)는, 바울이 ‘이 악한 세대’(갈1:4)가 더 이상 길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종말론적 긴장 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크리스천의 구원과 역사적 상황에 연결되어 진술한다고 주장한다.⁴³⁾ 크리스천은 실제로 죄와 전쟁을 하고, 죄에 의해서 위협받고, 공격받고, 위협에 처해져 있다. 싸움과 유혹의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의 거짓 신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는 전쟁, 이러한 ‘종의 멍에’를 ‘다시’ 지지말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조오지는 말한다.⁴⁴⁾ 조오지는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어려움과 위협, 그리고 죄로부터의

41) William Hendriksen, *Galatians* (Grand Rapids: Baker House, 1990), 80; Herman N. Ridderbos,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Grand Rapids: Eerdmans, 1984), 82-85. 이 책에서 리더보스도 역시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말한다; Frank J. Matera, *Galatians*, 74. 마테라도 역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지만, 덧붙여서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도 언급한다;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44.

42) William Hendriksen, *Galatians*, 192.

43) Timothy George, *Galatians*, 353.

자유라는 종말론적 입장에서 자유를 주장한다. 그래서 바울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지지말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조오지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조오지는 갈라디아서의 자유를 도덕적 측면에서 보고 있기도 하다. 크리스천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도덕적 혼동의 결과로 인한 방탕한 생활로 가정함으로써 손상되는 위험 안에 있다고 조오지는 말한다.⁴⁴⁾ 크리스천의 자유는, 크리스천이 잘못 알고 있는 도덕적 혼동으로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갈5:13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라는 말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조오지는 말한다.⁴⁵⁾ 결국 조오지는, 갈라디아서에서 자유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그룹간에 갈등이라는 정황적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조오지처럼 윤리적 측면으로 많이 이해하는 것은, 갈라디아 정황이 긴박한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게 한다.

자유를 윤리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벳츠도 조오지와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벳츠는 자유를 갈6:9 통하여 윤리적 자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⁴⁷⁾ 벳츠는 윤리적 측면에서 자유를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역시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라는 정황적 측면에서도 말하고 있다. 특별히,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진술하는 것으로 본다.⁴⁸⁾ 대적자들이 율법준수와 할례에 복종케 함으로써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을 그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율법준수와

44) *Ibid.*, 353.

45) *Ibid.*, 376.

46) *Ibid.*, 376-377.

47) Hans Dieter Betz, *Galatians*, 309-310. 벳츠는 그의 책에서 자유를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이 책 257쪽에서 바울의 윤리는 유대인과 헬라적 개념과는 다르다고 언급하여, 신적 구속의 윤리를 말하고 있다.

48) *Ibid.*, 90-91.

할례에서 자유롭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자유의 주체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상정하는 것은 룡거넥커와 공통점이 있다. 벅츠는 자유를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의 상황을 종합하는 중심이 되는 신학적 개념으로 말한다.⁴⁹⁾

모리스(L. Morris)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유를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다.⁵⁰⁾ 바울에게서 사도의 자유는 매우 큰 문제였다. 바울은 신약 성서에서 41번 자유라는 말을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서, 바울 서신 중에서 27회나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⁵¹⁾ 이처럼 신약 성서에 사용된 자유를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유가 바울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암시해 준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이방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여 새롭게 많은 회심자들이 교회에 들어 왔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모리스는, 이러한 사태를 바울이 사도로서 불신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한다.⁵²⁾

갈라디아서의 자유를 윤리적 측면에서 찾고자 하는 조오지와 벅츠의 입장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포함하는 바울 그룹의 대립이라는 정황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강한 자에게 강요당하는 율법으로부터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말하는 헨드리센과 룡거넥커의 주장은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바울의 사도권 자유를 말하는 모리스의 주장도 역시 타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자유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다.⁵³⁾ 조오지(T. George)는 “크리스천 자유의

49) *Ibid.*, 255.

50) Leon Morris, *Galatians* (Downers Grove: IVP, 1996), 69.

51) *Ibid.*, 69.

52) *Ibid.*, 68-69.

53)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60.

대헌장”,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자유에 관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⁵⁴⁾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 자유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자유라는 말을 통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말하자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면서 억압되어 있는 약한 자 그룹에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이 진술하는 자유는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의 강한 자 그룹인 대적자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는 약한 자들인 여자나 이방인 크리스천 공동체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였고, 자유를 위한 방법으로 영적인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54) Timothy George, *Galatians*, 151.

제 2 장 갈라디아 공동체의 구성원 분석

제 1 절 강한 자 그룹

갈라디아서에서 강한 자 그룹은 약한 자 그룹의 대적자로 표현할 수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는 약한 자 그룹과 강한 자 그룹이 갈등하고 있었으며,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을 지원함으로써 대적자들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약한 자 그룹의 대적자는 바울이 약한 자 그룹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울의 대적자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자 그룹이 주장하는 율법준수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으로도 강한 자 그룹이 바울의 대적자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갈1:6-10, 4:17, 5:7-12, 6:12-13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이미 강한 자 그룹이 행동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에게 경고하거나 회유하고자 의도하는 데에서도 이미 대적자와 대결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를 선동하는 바울의 대적자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언급하는 닐(W. Neil)의 주장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대적자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⁵⁵⁾

갈라디아서에서 대적자들은 갈라디아서 여섯 장 중에서 매 장마다 진술되고 있다. 이것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대적자에 의해서 매우 혼란하였고,⁵⁶⁾ 바울은 대적자에 대처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갈1:6-7절에서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갈2:4-5절에서는 ‘거짓형제’, 갈3:1절에서는 ‘찌는 자’, 갈4:17절에서는 ‘열심 내는 자’, 갈5:7-12에서는 ‘어지럽게 하는 자’, 갈6:12-13절에는 ‘할례 받게 하는 자’로 진술하여 바울은 갈라디

55) William Neil, *The Letter of Paul to The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76.

56) Leon Morris, *Galatians*, 23.

아서에서 대적자를 다양한 표현으로 진술하고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대적자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대적자의 성향, 바울과 약한 자 그룹에 대적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적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타이슨(Joshep B. Tyson)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는 유대주의자 유대인 크리스천이 바울의 대적자라고 주장하지만,⁵⁷⁾ 원시 크리스천은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유대교의 율법에 복종하여야만 하였다고 언급하는 샌더스(E. P. Sanders)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대인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도 유대화 된 크리스천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이슨의 견해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⁵⁸⁾ 그러므로 대적자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함께 유대화 된 이방인 크리스천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을 인종상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고 있다.⁵⁹⁾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에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베커(J. C. Beker)의 주장은 유대인 크리스천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⁶⁰⁾ 이렇게 보는 것

57) Joseph B. Tyson, "Paul's Opponents in Galatia," *NT* 10 (Oct, 1968): 252.

58) E. P. Sanders, "Reflections on Anti-Judaism in The New Testament and in Christianity," *Anti-Judaism and the Gospels*, ed. William R. Farmer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266-267.

59) Helen Doohan, *Paul's Vision of Church*, 15. 두한(H. Doohan)은 초기 선교운동의 다양성을 네 그룹으로 드러난다고 말한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할례를 포함하여 모세의 율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할례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그룹, 세 번째는 할례를 요구하는 사람과 유대교적 음식 규례를 준수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그룹, 네 번째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할례, 음식법, 그리고 유대교적 의식(cult)을 주장하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Hans Dieter Betz, *Galatians*, 5. 벅츠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대적자의 기원과 사상, 그리고 개인적 성향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바울의 대적자는 간접적인 자료를 통하여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한다.

60) J. C. Beker, *Paul The Apostle* (Edinburgh: Fortress Press, 1980), 42.

은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핫 이슈로 삼은 것이 할례를 포함하는 율법준수이기 때문이다. 유대를 떠나서 이방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대교 전통에 따라 대부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의 유대인 크리스천은 할례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 반면에 갈라디아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유대화 된 이방인 크리스천이나,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 먼저 입교하였다가 후에 갈라디아 공동체에 들어옴으로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 크리스천은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에는 이미 크리스천이 되었 으면서도 동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들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후 1세기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독특한 관습에 대해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유상현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1세기를 전후한 로마 제국의 각지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흠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고유하게 간직해 온 독특한 관습에 흥미를 느끼면서 그 관습을 지키려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예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유대교에 정도 이상의 흥미를 가진 사람들 중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던 할례 받지 않은 부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바로 회당 주변의 이방인들이다. 이들이 흔히 일컫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정체 있는 특성화 그룹으로 보고 별도의 칭호를 사용하는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회당 주변에 일정한 이방인들이 모이고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⁶¹⁾

61) 유상현, 『사도행전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0.

갈4:12-16에서 진술된 바와 같이 유대화 된 이방인과 갈라디아 공동체의 크리스천이 된 이방인이 율법준수에 관한 성향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이방인 크리스천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논쟁의 중요한 이유로 삼은 것으로 볼 때, 갈라디아 공동체에는 할례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 및 할례를 받은 이방인 크리스천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 율법준수를 강조하는 그룹을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의 대적자가 인종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할례와 율법준수라는 측면에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구분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크리스천과 할례 받고 율법준수 하는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는 강한 자 그룹과 율법준수를 거부하는 약한 자 그룹,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율법준수를 거부하고 약한 자 그룹을 지원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한 바울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강한 자 그룹 중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대인 크리스천, 그리고 할례를 받거나 율법준수에 동의하는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약한 자 그룹은 강한 자에 의해서 교회 활동에서 소외되면서 율법준수를 거부하는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울 그룹은 바울처럼 유대인 크리스천이 있었는가 하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준수도 하지 않는 디도와 같은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3:1에서 ‘너희를 찢더냐’는 강한 자 그룹에 유대인 크리스천만을 상정하

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율법준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 크리스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 ‘찌더냐’(ejbavskanen)는 과거형 동사로 이미 꼬임에 넘어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꼬임에 넘어간 내용은 할례와 율법준수이고, 할례와 율법준수를 지키도록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이방인 크리스천임이 분명하다.⁶²⁾ 강한 자 그룹에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갈3:3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울에게서 성령은 복음의 근본으로 볼 수 있다.⁶³⁾ 강한 자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로서 갈3:3에서는 육체로 진술되어 있다.⁶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시작한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천이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령으로 시작한 그룹은 율법과 친밀하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것이 더 받아들여질 만 하다.

그런가 하면, 강한 자 그룹은 할례와 율법준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특정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처음에는 율법과 가까이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강한 자 그룹의 꾀에 빠진 사람들로서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갈3:2에서 성령은 율법과 관련이 적은 것으로 진술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더욱 더 분명하게 한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약한 자에게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대적자들은

62) Hans Dieter Betz, *Galatians*, 131. 벳츠는 이 책에서 바울이 ejbavskanen라는 말을 쓴 것은 대적자와 그들의 지적 전략으로 특징 지우려는 수사학적 목적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수사학적 문제로 보는 것은 평의 주장과 같지만, 평은 수사학적으로 꼬임을 받은 사람을 책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29;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51.

63)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150.

64) Hans Dieter Betz, *Galatians*, 133-34;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149. 브루스는 육체가 할례를 수행해야 할 몸이 아니라 다시는 씻을 수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있으나, 바울이 비록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갈라디아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으로서는 현실적인 할례와 율법준수 문제에 국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강한 자가 될 수는 없었다. 강한 자 그룹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 결국,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강한 대적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긴장과 불신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마틴(J. L. Martyn)의 주장은 갈라디아서에서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다.⁶⁵⁾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강한 자 그룹을 지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판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갈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별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비판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불만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에게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강한 자 그룹을 지원하는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갈2:11-14에서 야고보가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로 대변되는 인물인가에 대하여 분석하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이 바울이나 약한 자 그룹에 비하여 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대표적 인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야고보를 언급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이 강한 자 그룹을 지원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갈라디아 공동체

65) J. Louis. Martyn, *Theological Issues in the Letters of Paul*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28-36. 마틴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긴장이 되는 배경을 네 가지로 언급한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의 바울의 거리감(갈1:17-18),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만남(갈2:1-10),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온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갈2:11-14), 네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시각차(갈4:25) 등으로 갈라디아서에 진술되었다고 마틴은 언급하고 있다.

에 인식되고 있었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구성원으로 대변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tina" ajpo; !Iakwvbou)은 이미 안디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13절에서 이미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과 교류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갈2:12에 ‘어떤 이들(tina")’은 행15:1에서 tina"로 진술하여 안디옥에서 영향을 미친 같은 부류의 사람의 ‘어떤 사람’이다. 비록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는 저술의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15:1과 갈2:12에서 진술된 인물이 언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황적으로도 같은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파견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2:12에 ‘어떤 이들’을 행15:1절에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온 어떤 이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브루스의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⁶⁶⁾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새롭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음식을 함께 먹다가 ‘어떤 이들’이 와서 자리를 떠난 이유는 ‘어떤 이들’이 갈2:12절에 진술된 ‘할례자’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행15:1절에서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서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진술과 공통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안디옥에 상주하고 있는 유대주의자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바울이 굳이 야고보라고 강조하여 특정한 사도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비판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이다.⁶⁷⁾ 바울이 ‘야고보에게서 온

66)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130.

67) *Ibid.*, 131. 브루스는 이 책에서 바울이 야고보의 메신저나 야고보 자신을 비방하려고 언급하지 않는다는 슈미탈스의 주장을 비판함으로써 바울이 야고보를 비방하고

어떤 이들'을 통하여 야고보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들'을 보낸 사람은 야고보라는 것을 표시한다고 주장하는 평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된다.⁶⁸⁾

바울이 야고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이미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미 갈2:9에서 바울은 야고보를 통하여 자신의 사도적 위상을 높였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협력하는 대표 인물로 진술했기 때문에 야고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야고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화해의 활동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라는 인물을 비판하는 것과 함께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으로서 할례의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율법준수와 할례를 반대하기 어렵게 한다. 반면에, 야고보에 대한 간접적 비판은 율법준수와 할례를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기도 하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포함하여 확장 비판할 수도 있게 한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문제가 단순히 바울의 신학적인 문제나 교회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학적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바울은 야고보를 비판함으로써,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진술하는 갈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냉대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되돌려 주고

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게 한다; W. Schmithals, *Paul and James* (London: SCM, 1965), 68.

68)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07. 평은 이 책 각주 16을 통하여 바울이 '어떤 이들'이 율법과 유대인을 위해서 서 있는 야고보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이해한다고 언급한다.

있는 것이다.⁶⁹⁾

더 나아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있으면서도 베드로나 야고보 외에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지도자나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강한 대적자를 지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을 대적자로 생각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야고보에 관해서는, 바울 서신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제시되고 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중에 한 그룹에서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브루스의 말은 받아들여질 만하다.⁷⁰⁾ 더 나아가, 갈1:19나 행12:17에서 야고보의 위치는 단순히 한 그룹의 지도자로 보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지도자이거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룹의 지도자로 볼 수 있다.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지도자로 보는 브루스의 다음의 언급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한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9년 후에 '야고보와 형제들'이 베드로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탁월한 그룹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야고보의 영향은, 그가 베드로보다 높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질 때까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 전승 안에서 예수의 가족과 관련 때문에 더욱 더 두드러졌다.⁷¹⁾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보는 브루스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69) *Ibid.*, 75. 평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두 지도자 밖에 만나지 못한 것은 다른 지도자와 사도들은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70)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99. 브루스는 행12:17에서 '야고보와 형제들'은 베드로와 협력하는 데에서 떨어진 그룹이라고 언급한다.

71) *Ibid.*, 99-100.

있다. 갈2:9에서 ‘기둥같이 여기고’와 갈2:12에 ‘야고보에게서 온’과 ‘두려워하여’는 야고보의 영향력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⁷²⁾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바울은 비록 야고보를 ‘주의 형제’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밝힐 때에는 오히려 ‘기둥’이나 ‘할례자’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야고보를 비판하려고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적절하므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의 형제’로 진술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둥’이나 ‘할례자’ 등 바울의 직접적인 진술로 알 수 있다. 역사적 예수와 만난 적이 없었던 바울은, 예수의 형제로서 야고보를 진술하는 것이 자신의 영향력에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갈라디아서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강한 자 그룹은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유대화 된 크리스천으로서,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율법준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자 그룹이 강한 자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

72) Hans Dieter Betz, *Galatians*, 78. 벳츠는 바울이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진술한 것은 그의 대적자들이 이들의 권위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변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고, ‘기둥’, ‘야고보에게서 온’, ‘할례자’ 등으로 야고보의 위치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유상현, “예루살렘의 야고보,” 『신학논단』 22 (1994): 96-99. 갈2:9에서 진술된 ‘기둥처럼 존중히 여김을 받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위계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 유상현의 주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상위의 지도자 야고보를 이해하게 한다. 유상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둥’같은 존재로서의 야고보 모습 자체를 근거 없이 날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는 일련의 지도자 이름들을 조직적으로 거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위계, 그 강도와 응집력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위계의식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위계의 정점에 야고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상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10-212, 277.

로 지원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야고보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과 바울 그룹에게 강한 자 그룹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강한 대적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나 사도들을 포함하는 것은 갈 4:25-26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수사학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 지역을 진술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갈4:21-5:1에서 수사학적 상황은 바울이 직면한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한 엘리엇(Susan M. Elliott)의 말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포함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자를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지적이다.⁷³⁾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울의 대적자이기도 하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대적자를 지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함께 대결하여만 하였다.⁷⁴⁾ 바울은 그들이 ‘종노릇(갈4:25)’ 한다고 표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이 바울과 심한 대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나 사도들로 이해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결하는 바울 그룹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73) Susan M. Elliott, “Choose Your Mother, Choose Your Master : Galatians 4:21-5:1 in the Shadow of the Anatolian Mother of the Gods,” *JBL* 118/4 (1999): 679; Lorin L. Cranford, “A Rhetorical Reading of Galatians,” *SwJT* 37/1 (Fall, 1994): 7. 크랜포드(L. L. Cranford)는 갈3:1-4:31은 그리스와 유대적 수사학 형태가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특별히 구약성서를 인용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를 잘 지원해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Curtis D. McClane, “The Hellenistic Background to The Pauline Allegoric Method in Galatians 4:21-31,” *RQ* 40/2 (1998): 125-135. 맥클레인도 갈4:21-31이 헬라적이고 랍비적 수사학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역시 크랜포드와 같은 입장에 있다; Hans Dieter Betz, *Galatians*, 239-240.

74) Sam K. Williams, *Galati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9. 이 책에서 윌리엄스는 바울의 이방인 회심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외부 유대주의자에 의해서 이미 공격받았다고 언급한다.

들은 ‘자유자(갈4:26)’이며 ‘종노릇’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과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울의 대적자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원한다고 주장하는 롱거넥커의 주장은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⁷⁵⁾ 그러므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대적자로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중도 자 그룹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서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의 중간에서 할례와 율법준수에 관하여 중도적 입장에 있는 그룹이 중도 자 그룹이다. 중도 자 그룹은 바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사람들로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들을 바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도 자 그룹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친유대적 크리스천이 있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반유대적 크리스천이 포함된 그룹이다. 친유대적이거나 반유대적 크리스천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울을 추종하였거나 바울의 활동에 협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자 그룹을 바울 그룹으로 지칭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강한 자 그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우리’라고 언급하여 바울을 중심으로 하거나 바울에게 찬성하는 그룹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의 중도 자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천이거나 이방인 크리스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75)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xcv.

바울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바울이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갈2:15에서 ‘우리’는 유대인 크리스천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갈2:10은 갈2:1절에서 유추하여 볼 때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과 할례 받은 유대인 크리스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⁷⁶⁾ 그러므로 중도 자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롱거넥커의 말은 타당하다.⁷⁷⁾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우리’로 표현되는 중도 자 그룹의 특징적인 면은 갈2:16에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말하자면, 중도 자 그룹은 율법준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 진술된 중도 자 그룹은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그룹을 대적자로 여겨서 강력하게 그들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강한 대적자로부터 자유 하고자 희망하고 있다.

76) Hans Dieter Betz, *Galatians*, 84. 이 책에서 벳츠는 갈2:9를 인용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동등한 서열에 있었던 것으로까지 보고 있다. 바나바가 바울과 동등한 서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보다,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그룹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위 책, 115. 벳츠는 이 책에서 바울이 자신을 유대인 크리스천과 같은 배경에 있다고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은 유대인 크리스천으로서 자기를 유대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자기 정의’를 드러낸다.” 바울의 그룹에 유대인 크리스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하는 벳츠의 언급은 타당하다; James D. G. Dunn, *Jesus, Paul and the Law* (London: SPCK, 1990), 121. 던도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동등한 파트너였다고 언급한다.

77)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51; Rudolph H. Blank,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CJ* Vol. 20 (July, 1994): 236-237. 블랑크는 인종적 측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언급하지만, 감성적 측면에서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이 책 250쪽에서, 블랑크는 세 가지로부터 자유를 언급한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신비적 힘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자유. 블랑크가 언급한 자유는 영지주의적 견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적자와 대결하는 상태에 있는 중도 자 그룹은 갈6:9에서 ‘우리’로 진술하여 대적자를 제어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⁷⁸⁾ 갈6:9의 표현에서, 갈라디아 공동체에서는 대적자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피곤하여 지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낙심하고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은 강한 자 그룹이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kalo;n(선, good)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중도 자 그룹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약한 자 그룹을 강한 자 그룹의 율법준수 요구에서 자유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율법준수를 하지 않는 중도 자 그룹이나 약한 자 그룹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벳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을 행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갈라디아서에서만 위치하고 있다; 행함은 ‘율법의 행위’와 관련된다. 그러나 ‘선을 행함’은 성령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을 위한 앞의 설명하는 것에서 ‘율법의 행위를 행함’과 다르다. 바울은 여기에서 갈라디아 공동체가 선을 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⁷⁹⁾

선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벳츠의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신의 그룹에게 유리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바울 그룹은 할례와 율법준수라는 항목에서는 강한 자 그룹이나 약한 자 그룹에 비해서 중도 자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의 사도권과 관련하

78) Hans Dieter Betz, *Galatians*, 273. 벳츠는 갈라디아 공동체가 싸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벳츠의 표현을 양방향에서 보면 싸우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쪽 방향에서 보면 대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79) *Ibid.*, 309.

여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그룹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갈2:11-14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을 비판하는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갈2:11-14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이미 와 있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의 태도에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야고보를 더욱 더 크게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함께 식사교제를 자유롭게 나누는 관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12절에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⁸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 중에서 최소한 베드로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과 베드로의 협력은 갈1:18-19에서 바울이 선교 활동에서 베드로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갈2:7-8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묘사를 통하여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과 이들을 더 확장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사도들을 함께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바울이 그의 대적자를 비판하려는 의도를 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80)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07. 평은 베드로가 이방인 크리스천과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방인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천까지도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바울과 베드로가 이미 선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12절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는 언급으로 보아 베드로가 바울과 음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바울은, 그의 면전에서 반대하는 베드로와 관련된 안디옥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갈라디아에 그의 대적자를 비판하기 위하여 그의 믿을만한 복음과 사도적 신분으로 뒷받침된 방어는 갈1:11에서 시작했다고 결론 내린다.⁸¹⁾

베드로를 면책하는 안디옥 사건이 개인적 책망이기보다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를 상대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만하다. 결국, 바울은 베드로에게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는 대적자를 지원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함께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가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라고 하기보다는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의 강한 자 그룹을 지원하기 때문에 야고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위기는 갈라디아 공동체를 유대화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갈2:12)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던(J. D. G. Dunn)의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대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지될 만하다.⁸²⁾ 바울의 대적자는 유대인 크리스천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할례와 연력에 따른 종교적 의식을 요구하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는 룡거벡커의 언급도 역시, 바울의 대적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81) *Ibid.*, 104;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59, 서중석도 안디옥 충돌 사건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82)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4.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애매함으로 인하여 바울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던은 보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갈등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던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로 인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언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갈2:4-5에서 ‘거짓 형제’와 ‘중’이라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갈라디아 공동체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⁸³⁾

더 나아가, 던은 안디옥 사건을 통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대적자를 예루살렘 회의와 관련시키고 있는 것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⁸⁴⁾ 바울은 2차 예루살렘 방문(갈2:1)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이 참여하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바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다. 바울의 유리한 결과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회의 이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갈2:2-10과 갈2:11-14에서 이방교회의 독립적 의식(cult)과 바울의 독자적 권위인 사도권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디옥 사건 이후 바울은 독자적 이방선교를 하였다고 보는 던의 입장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방선교의 독자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 진다.⁸⁵⁾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의 대적자는 예루살렘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바울의 대적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방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같은 사도권을 인정받고자 하였다. 갈1:16-17의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이라는 진술에서 바울은 이방 교회에서 이미 사도로서 불려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바울이 ‘나보다 먼저 사도’라고 진술을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동일하게 자신을 사도로 인식한 것이다. 갈2:8에서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라는 진술에서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사도로 불려진 것을 한층 더 분명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⁸⁶⁾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정황으

83)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xcv.

84) James D. G. Dunn, “The Incident at Antioch (Gal. 2:11-18),” *JSNT* 18 (1983): 3-37.

85) *Ibid.*, 39.

86) Martin Hengel and Anna Maria Schwemer, *Paul: Between Damascus and Antio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92-93.

로 볼 때,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공동체를 포함한 이방 교회에서 사도로 불려지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진술하여, 이방 교회에서 사도로 불려졌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직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사도로 불려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도로 인정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3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지만(갈1:18; 2:1; 행12:25; 15:4; 21:17),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⁸⁷⁾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서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고 하는 하워드의 언급은 타당하며,⁸⁸⁾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서 사도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직으로 인한 바울의 진술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갈1:1에서 바울이 사도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였다.⁸⁹⁾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와 심한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요건이 될 수 있었다. 사도직에 관련하여 바울이 갈1:1에서부터 진술하는 것은 사도직에 관한 바울의 의도가 갈라디아서에 깊이 깔려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 갈1:1과 관련하여 바울의 사도직에 관하여 서중석은 다음과 같이

87) Maurice F. Wiles, *The Divine Apost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18.

88) G. Howard, *Paul: Crisis in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nd edition 1990), 28-34.

89)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22-32, 서중석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사도권을 강화하고 사도권 남발을 막기 위하여 사도의 기준을 세가지 제시하였다고 말한다. 첫째는 역사적 예수를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부활 직후 공동 식탁 교제를 하여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부활 현현을 40일로 제한하는 것이다. 서중석의 언급에 따르면, 사도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엄격한 근거를 통하여 인정받아야만 하였다.

말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맨 첫머리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난 것도 아님을 뚜렷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인정받았다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통하여’ 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 중략 - 바울이 사도직을 허락 받았다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색조가 지금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⁹⁰⁾

서중석과 던의 주장에서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 첫 부분부터 사도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가 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바울의 사도직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 의한 예루살렘 회의와 관련된다.⁹¹⁾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갈1:18; 2:1). 1차 예루살렘 방문과 2차 예루살렘 방문을 모두 진술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2차 방문 이후에 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방문과 2차 방문이 함께 진술될 수 있는 것이다. 예루살렘 방문에 관한 진술을 하는 데에도, 1차 방문은 2차 방문

90) *Ibid.*, 64; Hans Dieter Betz, *Galatians*, 39. 벅츠는 이 책에서 갈1:1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진술을 통하여 바울은 사도직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언급된다. 서중석의 ‘사람으로부터’와 ‘사람을 통하여’나 벅츠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는 대립되는 언어의 사용이지만, 그 의미는 바울이 사도직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사람으로부터’와 ‘사람을 통하여’ 된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를 구별하여 갈라디아서 전체에 사도직으로 인한 대립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571. 던도 역시 바울이 갈1:1에서 자신이 스스로 사도인 것을 강하게 진술하여 갈라디아서를 열어간다고 주장한다; James D. G. Dunn, *Jesus, Paul and the Law*, 108-109.

91) Bengt Holmberg, *Paul and Pow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15-32.

의 결과에 따른 영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방문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바울의 심정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에서 얻은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도직에 관한 진술이 2차 방문 이후에만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진술된 바 있지만, 2차 방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1차 방문에서도 사도직과 관련된 심정이 진술되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진술된 내용에도 사도직과 관련된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직에 관한 실제적 진술이 갈1:17에서 다메섹의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을 찾지 않은 것에서부터 암시하고 있다. 다메섹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을 찾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1차 방문한 것에 대하여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갈1:17에서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지 않았고, 회심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갈1:19).⁹²⁾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의 목적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독립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브루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울이 다메섹 회심 이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진술이나 예루살렘을 1차 방문하였지만 모든 사도들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진술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92)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19-20. 브루스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1차, 2차 방문에 관하여 진술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그의 독립성을 세우려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여,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의 사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브루스의 말은 인정된다; G. Howard, *Paul: Crisis in Galatians*, 20; James D. G. Dunn, *Jesus, Paul and the Law*, 117.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바울은 갈2:11-14에 안디옥 사건을 진술함으로써, 안디옥 사건 이후로 바울의 사도권은 독립되었다고 말하는 등의 주장은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가를 알게 해 준다.⁹³⁾ 더 나아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로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유(ejleuqerivan)는 2:4절에서 처음으로 진술되고 있다. 갈 2:4를 통하여 볼 때에 자유를 가지는 주체는 ‘우리는’으로 복수 형태를 가진 바울 그룹과 약한 자 그룹으로 보여진다. 그런가 하면,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짓 형제’(yeudadevlfou)도 역시 복수 형태를 가진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대적자 그룹으로 보여진다. ‘거짓 형제’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pareish'lqon)과 ‘엿보고’(kataskoph'sai), 그리고 ‘중으로 삼고자 함’(katadoulwvswntai)처럼 과거형 동사로 표현함으로써 ‘거짓 형제’는 이미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위협하거나, 갈라디아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⁹⁴⁾

‘거짓 형제’가 비록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약한 자에 대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거짓 형제’는 현재 자유하기를 원하는 바울 그룹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 그룹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그룹이 아닌 것은 ‘엿보고’(kataskoph'sai)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울 그룹이 자유하고자 하는 것은 ‘엿보는’ ‘거짓 형제’가 아니라 갈2:6에서 ‘유명하다는 이들’로 상정할 수 있는 ‘거짓 형제’보다 더 강력한 외부의 대적자일 것이다. 갈2:4-8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생긴 사건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는 벳츠의

93) James D. G. Dunn, *Jesus, Paul and the Law*, 161.

94)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113. 브루스는 ‘거짓 형제’가 예비온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유대인이나 유대화 된 크리스천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바울의 대적자로 진술된 ‘거짓 형제’는 예비온주의자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주장을 받아들일 때에, ‘거짓 형제’보다 더 강력한 외부의 대적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⁹⁵⁾ 결국, 바울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약한 자 그룹을 지원하고 있지만, 강한 자 그룹을 지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더 크게 비판하고 있다.

하워드(G. Howard)가 예루살렘과 관련된 유대인 크리스천을 바울의 대적자로 보는 것도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을 비판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⁹⁶⁾ 2:11-14에서 바울에게 책망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임을 보여 줌으로써, 바울의 직접적인 대적자가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다기보다는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하워드의 말은 받아들여 진다.

‘거짓 형제’가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대적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보다 더 중요한 대적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갈2:3에서 할례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⁹⁷⁾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 대적하는 중요한 문제를 할례와 연결하고 있다. 할례는 ‘거짓 형제’와 대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짓형제’를 지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 연결된 문제이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강한 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지원받는 문제가 할례와 율법준수에 있기 때문이다. 갈2:4에 진술된 자유는 ‘거짓 형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유를 지키거나 되찾기 위해서 대결하는 직접적인 대적자는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대적자를 지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95) Hans Dieter Betz, *Galatians*, 89; J. Louis Martyn, *Galatians*, 195.

96) G. Howard, *Paul: Crisis in Galatians*, 5-19.

97)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51. 롱거넥커는, 바울이 ‘거짓 형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할례가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간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와 사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을 갈6:6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진술 속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서 율법준수로 인한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간의 갈등도 바울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진술로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중도 자 그룹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대등하거나 독립적 사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역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바울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약한 자 그룹을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장에서는 중도적 중도 자 그룹이지만, 사도권과 관련하여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은 바울의 대적자였다. 그러나 바울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서는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의 화해를 시도하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 사이에서도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제 3 절 약한 자 그룹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강요당하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대적자는 토라에 종 된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는 믿음이 없는 강한 자 그룹을 말한다.⁹⁸⁾ 약한 자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율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런 율법 행위에 직접적으로 강요되는 그룹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이나 종이나 여자들이다. 갈2:3절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약한 자로 보여주고 있으며, 갈4:1-7절은 종이 약한 자로 보여주고 있으며, 갈4:21-31절은 약한 자를 여자로 보여주는 단락이다. 이렇듯이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억압되고, 제한되는 정황을 알 수 있게 진술하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한 강한 자 그룹으로서, 그들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에게 율법준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촉발시켰다.⁹⁹⁾ 갈3:2에서 강한 자 그룹이 약한 자 그룹을 찢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진술하고 있고, 갈3:13에서는 ‘율법의 저주’라고 진술함으로써 율법을 적대적으로 진술하고, 갈5:5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진술하는 등,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율법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갈라디아서에는 표현되어 있다.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유대주의자의 견해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을 비난함으로써, 갈라디아서에서 그의 입지를 방어하려고 하였다는 영(Norman H. Young)의 주장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과 바울 그룹이 강한 자 그룹과 갈등하는 요인이 율법준수에 관련되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¹⁰⁰⁾

강한 자 그룹이 약한 자 그룹에게서 빼앗은 것은 무엇인가. 약한 자 그룹은 대적자인 강한 자 그룹에게 빼앗긴 것이 있었으며, 다시 회복하여야 할

98)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5; Hans Dieter Betz, *Galatians*, 309. 벳츠는 이 책에서 약한 자의 상태를 낙심하고 피곤해 하는 자이고, 약한 자를 낙심케 하고 피곤하게 하는 자를 강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99) Hans Dieter Betz, *Galatians*, 103. 이 책에서 벳츠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압제 안에 있었다고 언급한다.

100) Norman H. Young, “Who’s cursed - and Why? (Galatians 3:10-14),” *JBL* 117/1 (1998): 91; Jerry L. Sumney, *Identifying Paul’s Opponents: The Question of Method in 2 Corinthians* (Sheffield: JSOP Press, 1990), 15-42. 섬네이(Jerry L. Sumney)도 역시 바울의 대적자는 유대주의자라고 주장한다.

분명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대적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어 버리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갈4:30). 약한 자 그룹이 대적자에게 빼앗긴 것은 자유이다. 특히 갈2:4에 바울의 대적자는 ‘거짓형제’로 가만히 들어와 율법준수 하지 않는 약한 자 그룹을 종으로 삼고자 하여 자유를 빼고자 하였다고 진술한다.¹⁰¹⁾ 대적자는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약한 자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였다. 약한 자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강한 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강한 자의 종이 되고, 약한 자의 자유는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율법준수를 강요당하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는 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갈2:5에서 바울은 종으로 삼고자 하는 대적자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율법준수를 거부하는 약한 자 그룹의 모습을 보여 주어, 대적자로부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약한 자 그룹의 노력과 바울 그룹의 지원을 볼 수 있게 한다.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자의 묘사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으며, 할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약한 자로 이방인 크리스천을 드러내고 있다. 바울의 이러한 의도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로부터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을 바울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울 서신에서 여자에 관한 긍정적인 진술이 오랫동안 거의 무시되어 왔다. 가부장적 중심의 사회와 성직자 계급 중심의 교회에서 여자는 적절하게 이해되지 못하였다.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여자는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직자로서 성전의식에 봉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는 뉴스너(Jacob Neusner)의 말은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낮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한다.¹⁰²⁾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바울 서신에서 더

101)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0. 이 책에서 던은 ‘거짓형제’는 스스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형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102) Jacob Neusner, *Judaism in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31.

나아진 여성의 평가는 남성 중심의 역사적 이해에서 양립할 수 있게 한다.¹⁰³⁾ 이것은 바울이 여자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바울의 입장이 잘못 이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여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진술한다는 측면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바울 서신에서 여자는 바울의 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바우메르트(Nobert Baumert)의 언급에서도 여자가 바울의 활동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여자의 활동에 대한 바우메르트의 말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바울은 여자를 단순히 크리스천 선교운동의 부유한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 그들 자신의 권리 안에서 - 힘써 일하는 탁월한 지도자이고 선교사도 드러내고 있다. 여자는 바울 이전에도 그리고 독립적으로도 교회의 지도자나 선교사의 활동에 종사하였다.¹⁰⁴⁾

여성은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바우메르트나 던의 말은,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솔러(David M. Scholer)가 갈3:28의 진술에서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여자의 목회활동에 대한 것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바울 서신에서 여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게 한다.¹⁰⁵⁾ 고전 11:2-16에서는 교회에서 여성의 일반적 참여를 확인할 수 있고, 고전 7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 그리고

103) Nobert Baumert, *Woman and Man in Paul*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6), 174.

104) *Ibid.*, 177;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586. 이 책에서 던은 여성이 단순히 약한 자에서 탈피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강한 자가 담당하고 있었던 목회활동을 한 것이 현저하다고 언급한다.

105) David M. Scholer, "Galatians 3:28 and the Ministry of Women in the Church," *CQ* 56 (Aug, 1998): 2.

상호협력의 분명한 모양을 볼 수 있다. 여성을 보는 바울의 태도에 대하여 진술하는 갈3:28을 줄리는 다음과 말한다.

나는 갈3:28을 여자와 남자를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서로 동등하고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라는 결론을 위한 기본적인 바울 신학의 기초라고 이해한다.¹⁰⁶⁾

줄리 역시 바울이 여성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회활동에 참여하였고, 더 나아가 서로 협력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바우메르트, 던, 줄리 등은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의 목회활동을 진술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던은 갈3:28에서 바울의 진술이 여성의 목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보인다고 하여 여성도 남성과 같은 목회적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¹⁰⁷⁾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여성의 목회에 대하여 진술한다는 던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남성에 뒤지지 않게 진술하였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여성의 목회활동을 남성과 동등한 활동으로 진술한 것은 남성이 주도하는 목회활동에서 여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여성을 남성과 대등한 관계로 대두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보다 약한 상황에 있는 여자에게는 강한 자로부터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같이 종족의 혼합도 있었고, 자주자나 종과 같이 신분상의 혼합도 있었고, 가르침은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같이 교육 수준이 다른 그룹도 섞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

106) *Ibid.*, 8; Nobert Baumert, *Woman and Man in Paul*, 296. 그러나 바우메르트는 갈3:28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 진술하기보다는 구원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 많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갈3:28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 언급을 반대하고 있다.

107)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592.

자와 여자도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갈3:28). 남자들이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교회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그 영향력이 컸다고 한다면(갈2:1, 8, 9, 12),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는 남자들에 비해서 위상이 높지 않았다.

게다가 남자 중심의 갈라디아 공동체가 안디옥 사건에서처럼 남자들에 의해서 논쟁하고 분리되어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갈4:4은 갈라디아 교회에 총체적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를 나게 한 것은 여자라고 밝혀서, 바울은 여자의 역할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다른 어떤 그룹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내비치고 있다.¹⁰⁸⁾ 서중석은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성에 비하여 약한 자의 상황에 있는 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을 약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강화시켜 주고 있기도 하다. 이방인 크리스천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에 의해서 배척되는 그룹이며, 바울은 강한 자로부터 소외된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주는 자유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⁹⁾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천을 약한 자로 드러내는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유대인 크리스천의

108)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233. 이 책에서 서중석은 약한 자의 대변인이 기꺼이 되고자 했던 바울이, 남성 그룹으로부터 여성 그룹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바울 서신에서 보인다고 말한다. 서중석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약자인 여성예언 그룹의 권익을 옹호하고 강자인 남성 예언 그룹에게 여성 그룹의 그 권익을 추인하도록 권고했다고”고 해석하였다. 남자와 여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진술한 갈3:28에서도 바울의 여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9) 전술한 바와 같이, 바울 그룹과 약한 자 그룹에는 이방인 크리스천의 다수와 유대인 크리스천의 소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바울이 강한 자 그룹에 대립되는 대표적 사람들을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설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준수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대결하는 대표적 입장이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171. 서중석은 위 책에서 “율법의 행위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방인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분리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으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말함으로써 율법준수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기준임을 인식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준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강한 자 그룹에서 소외되는 약한 자 그룹 중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영향 하에 있었던 이방인 크리스천 중에서 한 그룹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다고 말하는 펠서(G. M. M. Pelser)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게 한다.¹¹⁰⁾ 그러므로 약한 자 그룹은 강한 자 그룹에 대결하는 바울이나 바울 그룹으로 보기보다는, 강한 자 그룹의 율법준수 강요에 직접적 제한을 받는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울은 갈4:29에서 'kata; savrka'를 유대화 된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나타나고, 'kata; pneu'ma'는 바울의 옹호를 받는 바울 그룹과 약한 자 그룹으로 나타내고 있다.¹¹¹⁾ 강한 자 그룹은 육체로 낳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일을 하고 있으며(갈5:19-21), 약한 자 그룹은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갈5:22-23). 강한 자 그룹이 주장하는 할례도 역시 육체의 일에 속하므로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에 속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약한 자 그룹은 율법준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갈라디아 공동체의 정황은 육체의 일을 하는 강한 자가 성령의 일을 하는 약한 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갈라디아 공동체의 정황에서, 바울은 약한자인 이방인 크리스천을 강화하여 강한자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자주자와 종, 자유와 할례, 약속을 받은 자와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상속되는 자와 상속되지 못하는 자, 여자와 남자, 유대인과 헬라인, 육신과 성령,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와 계집 종에게서 난 자 등 전체적으로 이중 구조로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¹¹²⁾

110) G. M. M. Pelser, "The Opposition Faith and Works as Persuasive Device in Galatians (3:6-14)," *Neot* 26/2 (1992): 390.

111)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3.

112) Rudolph H. Blank,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242. 블랑크는 이 책에서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 틈에서 일어나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의 자유는 할례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이런 이원론적 구조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 공동체에 두 가지 자유를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¹¹³⁾ 왜냐하면, 갈라디아 공동체는 자유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자유는 갈4:29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다’고 하여 영적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진술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적 자유를 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처럼 힘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보다 약한 여자 크리스천이나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주는 약한 자의 자유를 진술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 그룹인 여자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위상을 추켜세우며 약한 자의 자유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¹¹⁴⁾

113)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1. 이 책에서 러셀은 갈라디아서에 나온 바울의 신학은 내적 이원론과 외적 이원론으로 구조되어 있다고 말한다.

114)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수사학적 표현을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에 관한 진술도 수사학적 표현이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수사학적 표현이고, 갈4장에서 여자에 관한 진술도 수사학적 표현으로 진술된 것이다.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수사학적 표현으로 갈라디아서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해석을 수사학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Philip H. Kern, *Rhetoric and Galatia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90. 이 책에서 케렌은 바울이 유대교적 수사학으로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말한다; Robert G. Hall, “Arguing like an Apocalypse : Galatians and an Ancient TOPOS OUTSIDE the Greco-Roman Rhetorical Tradition,” *NTS* 42 (1996): 435. 이 책에서 홀은 유대교적 수사학이 지중해 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지중해의 그레코-로마의 수사학적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한다; G. Walter Hansen, *Abraham in Galatians*, 55. 한센은 바울의 수사학적 표현에 대하여 “비록 바울이 헬라어 학교에서 고전적 수사학의 공식 교육은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의 서신에서 대중적인 수사학으로 표현한 것이 확실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한센은 맥고니갈(T. D. McGonigal)의 말을 인용하여 “갈라디아서는 ‘설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에 관하여 예술’의 본보기이다”고 말하여 갈라디아서가 수사학적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말하여 주고 있다. 이 책 각주 7에 인용된 화이트(John L. White)의 책을 보라; John L. White,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body of the Greek Letter. A Study of the Letter-Body in the Non-Literary Papyri and in Paul the Apostl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2; Missoula: Scholars Press, 1972). 맥고니갈에 관하여는 다음 책을 보라; Terrance D. McGonigal, “‘Abraham Believed God’: Genesis 15.6 and its Use in the New Testament’ (Ph. D.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1), 328.

제 3 장 여자의 자유

제 1 절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여자의 자유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에 속한 여자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 자유는 갈4:30-31절에서 여자들로 비유되어 있다. 바울은 여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대적자와 투쟁하고 있기도 하지만, 자유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성서를 인용하고 있기도 하다.¹¹⁵⁾ 바울이 구약성서를 인용하는 것은 강한 자 그룹이 구약성서에서 유대교적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한 자 그룹의 구약성서 해석을 반박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갈4:30-31에서 여자의 자유를 비유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역시 구약성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유를 진술하기 위하여 여자를 진술의 표면에 제시하고 있다. 갈4:21-31은 자유와 여자의 관계를 진술함으로써, 바울이 여자의 자유에 관하여 갈라디아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갈4:4에서도 약한 상태의 여자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자를 어머니로 표현함으로써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위치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여자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강한 자 그룹에 비해서 여자의 위치를 상승시키고자 한 의도를 갈4:4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강한 자 그룹을 속량하기 위해서 굳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였다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

115) Rudolph H. Blank,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249. 이 책에서 바울의 자유는 할례, 죄, 죽음에서부터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악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인간 사회의 신비한 힘으로부터 자유까지도 포함하여 자유의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울은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강한 자 그룹을 속량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을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보다 약한 상태에 있는 여자를 통해 강한 자에게 대결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서 나게’라는 진술을 하는 것은 바울이 강한 자 그룹보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갈4:4-5로 확장하여 해석할 때, 여자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나게 한 여자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갈4:4에서는 ‘여자에게’ 난 아들과 ‘율법 아래’에서 난 아들로 진술된 것은 여자와 강한 자 그룹을 대등한 관계로 바울은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한다. 그런데 여자와 강한 자 그룹의 대등한 관계는 갈4:5에서 여자를 강한 자 그룹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은 것으로 진술되었다. 아들은 ‘율법 아래’에서 낳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강한 자 그룹을 속량하게 되었고, 반면에 여자에게서 난 아들로 인하여 약한 자 그룹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됨으로써 오히려 ‘아들’을 낳은 여자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¹¹⁶⁾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강한 자 그룹을 속량하는 아들은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자는 강한 자 그룹보다 우월한 것이다.

여자의 더 큰 역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갈4:26절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말로 진술하고 있다.¹¹⁷⁾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자유는 ‘어머니’라고

116) 여자의 상승은 강한 자 그룹과 대립된 관계에서 상승을 의미한다.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여자의 자유라는 표현과 여자의 상승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역시, 강한 자 그룹에 비해서 상승하는 것과 같은 정황을 산출해 내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라는 표현보다는 상승이라는 표현이 문맥을 더 부드럽게 해 주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표현하였다.

117) Susan M. Elliott, “Choose Your Mother, Choose Your Master : Galatians 4:21-5:1 in the Shadow of the Anatolian Mother of the Gods,” 682. 이 책에서 엘리엇은 어머니를 지역적 특성에서 찾아내고자 한다. 말하자면 계집종인 하갈이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시내산 율법을 약속받은 것으로 비유한다면, 어머니는 위에 있

진술하여, 어머니로서 여자의 자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4:22에서 ‘자유 있는 여자’이고, 4:23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 있는 여자’로 진술되고 있다.¹¹⁸⁾ 결국 어머니는 자유라는 말이다. 같은 여자인 하갈이 현재 예루살렘의 어머니로서 시내산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는 종의 조상이라면,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로서 자유자의 모체가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그룹의 상징적 기원이 되고 있으며, 바울은 그 만큼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의 자유는 언약(covenant)이라는 표현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⁹⁾ 갈4:24절에 바울은 언약을 여자와 동일시하고 있다.¹²⁰⁾ 그리고 4:25-26에서는 여자를 예루살렘과 관련시키고 있다. 언약과 관련하여 여자와 예루살렘(현재의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수사학적으로 인용되어 여자의 자유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하갈의 언약은 강한 자 그룹이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강요하는 율법이라고 한다면, 사라로 예표되는 약속의 언약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되는 자유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갈의 언약은 종이 되는 언약이고, 사라의 언약을 자유자가 되는 언약이 된다. 두 언약 중에서,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강한 자 그룹은 종이 되는 하갈의 언약이고, 사라의 언약은 자유하는 여자의 언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는 예루살렘이 있는 새로운 산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요베스는 아래 책에서, 어머니를 언약적 특성에서 찾고자 한다. 하갈이 모세의 언약이라면 사라는 아브라함적 약속의 언약으로 보아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Karen H. Jobes, “Jerusalem, our Mather : Metalepsis and Intertextuality in Galatians 4:21-31,” *WTJ* 55 (1993): 301.

118)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08.

119) J. Louis. Martyn, *Galatians*, 454. 이 책에서 마틴은 하갈-사라, 시내산의 율법과 약속으로서의 언약, 육신과 성령을 창세기15-17장에서 비유적이고 예표적으로 읽고 있다고 말한다.

120) J. Louis. Martyn, *Theological Issues in the Letters of Paul*, 201.

바울이 약한 자인 여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갈-사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된다.¹²¹⁾ 비록, 비유는 하갈-사라의 대치적 관계에 있지만 바울이 여자들을 비유로 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에 대한 배려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하갈은 계집종으로서 약속되지 않은 아들을 낳았고,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로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되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었다.¹²²⁾ 이 비유는 외면적으로는 약속의 아들과 약속되지 않은 아들을 비유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대적자와 성령으로 따라 난 자유자의 대립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더불어 약속의 아들을 낳았던지, 약속되지 않은 아들을 낳았던지 여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²³⁾ 말하자면 4:30절에서 쫓겨 나가는 그룹도 여자에게서 낳았고, 쫓아내는 그룹도 여자에게서 난 것이므로 여자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롱거넥커는 바울이 갈4:21-31을 비유적으로 진술하여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언급하기 위하여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서 이방인 회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¹²⁴⁾ 롱거넥커는 갈4:21-31의 비유에 들어있는 자유자를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보고 있지만, 비유의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여자의 자유는 간과하고 있다.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드러내면서 여자의 자유를 간과하는 롱거넥커의 주장은 갈5:1의 ‘자유’를 갈4:31에서 ‘자유’의 진술과 언어

121) Andrew C. Perriman, “The Rhetorical Strategy Of Galatians 4:21 5:1,” *EQ* 65/1 (1993): 27. 이 책에서 페리만은 하갈-사라의 이야기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현재 벌어진 두 형태의 싸움을 언약적 측면에서 성령과 율법의 싸움이라고 말한다.

122) *Ibid.*, 31. 이 책에서 페리만은 갈4:24절의 두 여자가 두 언약이라고 언급하는 데에서 바울의 수사학적 표현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123) David M. Scholer, “Galatians 3:28 and the Ministry of Women in the Church,” 9. 술러는 갈3:28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대립인 것처럼, 종과 자유자도 대립적 관계이고, 남자와 여자도 대립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구조가 바울의 기본적 표현 방법이라고 말한다.

124)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18.

를 바로 이어받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서도 어긋나고 있다. 갈5:1의 '자유가 갈 4:31의 자유를 이어받고 있다면, 비유에서의 자유는 이방인 크리스천만의 자유가 아니라 여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5:1에서 자유하게 되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갈5:1이 이전에 진술되는 갈4:21-31절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갈5:2-12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논의는 누구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율법준수와 할례라는 갈등 요인과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논의의 입장을 알 필요가 있다.

마테라(Frank J. Matera)는 5:1을 5:2-12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²⁵⁾ 던(James D. G. Dunn)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¹²⁶⁾ 반면에 브루스(F. F. Bruce)는 5:1이 앞에 나오는 비유적인 내용과 비유적이지 않는 내용을 모두 종합해서 설명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4:21-31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¹²⁷⁾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5:1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현재의 새 의미로 변화시켜 주는 구절이라고 하여 4:21-31에 포함시키고 있다.¹²⁸⁾ 이에 반해서 펑(Ronald T. K. Fung)은 5:1이 구문법적으로는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앞 내용과 뒷 내용의 '교량역할'

125) Frank J. Matera, *Galatians*, 180.

126)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61. 이 책에서 던은 4:31과 5:1은 문법적으로 부드럽지 않고, 차라리 뒤를 이어 나오는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5:1을 통하여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5:1을 갈5-6장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127)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226. 이 책에서 브루스는 심지어 갈2:14절부터 4:31까지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5:1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128) W. Barclay,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42; 롱거넥커(R. N. Longenecker)는 5:1이 4:21-31에 포함되지만 그 이유를 4:21-31이 하갈-사라 비유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언어적 부족을 채우는데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24; J. Louis Martyn, *Galatians*, 432. 이 책에서 마틴은 5:1을 4:21-31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를 명령적인 구조를 통해서 말한다. 4:21을 시작하는 처음 어구가 "내게 말하라..."이고, 5:2을 처음 시작하는 어구가 "보라..."이다. 명령어로 시작하는 두 어구로 볼 때 5:1은 4:21에서 시작하는 문단에 속한다고 말한다.

을 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¹²⁹⁾ 벡츠(Hans D. Betz)도 역시 5:1이 앞의 내용 1:6-4:31을 포함한 전체를 결론짓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뒤를 이어 나오는 5-6장 전체를 시작하는 구절로도 보고 있다.¹³⁰⁾ 갈5:1은 갈4:21-31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므로, 비유는 여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갈5:1은 하갈-사라의 비유를 통하여 얻게 된 성도의 자유가 4:31의 결과로 응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¹³¹⁾ 이것은 갈5:1에 ‘자유케 하는’(for freedom, th' ejleuqeriva)이 4:31에 ‘자유하는 여자의’(of the free woman, th' ejleuqevra)라는 뜻을 집중해서 나타낸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갈5:1을 갈4:21-31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자의 자유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하고, 갈5:1을 갈2-12에 포함시키는 것은 할례와 율법준수라는 갈등 요인에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강한 자로부터 여자의 자유를 주장하는 본고에서는 갈5:1을 갈4:21-31에 포함하는 설을 받아들인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율법에 매인 계집종의 자녀와 투쟁하였다. 그 결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자녀가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자유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난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다. 문맥으로 볼 때, 여자는 자유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자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얻은 자유는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억제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이다.¹³²⁾ 이 자유는 갈2:4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바로

129)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6. 이 책에서 펑은 5:1이 4:21-31뿐만 아니라, 3-4장 전체와 심지어는 2:14-4:31, 여기에서 더 나아가 1:6-4:31까지를 모두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5장을 소개하는 서두로 서도 시작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130) Hans Dieter Betz, *Galatians*, 256. 이 책에서 벡츠는 5:1을 새로운 이야기로 진행되는 5-6장에 포함시켜 주석하고 있지만, ‘자유’라는 정제된 결정체로 5:1을 1:6-4:31에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131)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23.

132) *Ibid.*, 223. 롱거넥커는 이 책에서 유대교의 율법에서 억제되었던 사람을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한다.

그 자유이다.

바울이 할례를 강요하는 대적자에게 할례의 무용론을 말한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여자 그룹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할례는 남성적 의식(儀式, cult)이 강하므로, 상대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할례 의식에서 소외된다. 갈라디아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에서 할례에 관한 진술은 남자들과 관련하여 진술되어 있는 것도 할례에서 여자는 소외되어 있다는 견해를 가능하게 한다(갈 2:3).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여자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배제된 할례를 주장하는 대적자는 남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자가 받을 수 없는 할례는 남성 우월의 측면이 있으므로 바울이 할례를 반대함으로써, 남성에 비해서 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의 위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¹³³⁾

갈라디아서에서 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지 않은 것도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위치가 낮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여자의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 내용으로 기술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갈라디아 공동체는 여자의 위상이 매우 낮았고, 바울은 약한 자에 속하는 여자의 위상을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높여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도는 바울에게도 여자 그룹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전략상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다. 비록, 바울이 사도적 위상을 위해서 여자 그룹을 추켜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울은 여자들의 위상이 남자나 다른 지도자보다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갈라디아 지방에서 종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를 회복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

133) Troy W. Martin, "Whose Flesh? What Temptation?," *JSNT* 74 (1999): 88.

방에는 인구의 거의 50%가 자유를 잃은 종이였기 때문이다.¹³⁴⁾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는 말은 종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자유자에게는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갈5:1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갈라디아 공동체에 자유를 주었다고 말하는 바울의 입장도 역시 공동체에서 중대한 직면에 봉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자의 자유를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바우메르트(Nobert Baumert)는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자유를 제시하는 목적을 갈3:28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 본문은 종을 위한 외침이나 자유를 유발하는 외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주의에 대항하는 표현도 아니고, 그것의 의도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도 역시 아니다.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가 구원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높은 수준을 많은 방법으로 구성하기를 반드시 요구하게 하도록 하였다.¹³⁵⁾

바우메르트의 언급에서처럼, 바울은 여자의 자유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자의 자유와 함께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의 대적자가 그의 그룹에 참여할

134) Rudolph H. Blank,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237.

135) Nobert Baumert, *Woman and Man in Paul*, 296. 이 책에서 바우메르트는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여자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사회적 인류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바울이 여자의 자유를 진술할 때 교회 내에서만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 속에 있다는 바우메르트의 언급은 받아들여질 만하다; 평등 역시 인종적이고 성적인 평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에서서는 바우메르트와 같은 입장이지만, 그는 자유보다는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평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진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구분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의 인종적 차별을 말소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 진술의 강조점은 평등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결을 강조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75-176.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가 강한 자로부터 실제로 자유할 것을 진술하고 있지만, 여자의 자유를 변증하는 내용으로 대적자를 돌이켜서 갈라디아 공동체를 연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율법을 준수하고, 남성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하였던 강한 자 그룹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여자 크리스천과 연합할 때, 여자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이다.

제 2 절 성령을 통한 여자의 자유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대적자와 대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무기로 성령을 사용하고 있다.¹³⁶⁾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은 크리스천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다(고전2:4). 갈5:17을 주석하면서, 오닐(J. C. O'Neill)이 라이트푸트의 말을 인용하여 성령이 육체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말은, 바울이 성령을 무기로 하여 대적자와 대결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¹³⁷⁾ 바울이 성령을 무기로 싸우는 것에 대하여 롬8:1-17을 통하여 바클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령이 그에게 큰 선물을 가져온다. 성령은 그에게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를 가져온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 성령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온다. 성령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온다. 성령은 생명을 가져온다. 죽어야 할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있는 한다. 성

136) Hans Dieter Betz, *Galatians*, 30. 벡츠는 이 책에서 성령으로 방어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방어와 대결은 어감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은 대적자와 대결하는 무기로 생각할 수 있다; Rudolph H. Blank,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247. 블랑크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성도가 영적 자유를 얻으려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하여 성령의 역할이 큰 것을 암시한다.

137) J. C. O'Neill, “The Holy Spirit and the Human Spirit in Galatians,” *ETL* 71/1 (1995): 107.

령은 그에게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을 준다.¹³⁸⁾

비록 바클레이가 언급하는 대적자와 바울이 대결하는 대적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성령은 바울이 대적자와 싸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바클레이의 말은 일부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게서 지원받는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 있는 강한 자 그룹에 바울은 대항하는 힘이 있어야만 하였다. 바울은 대적자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성령의 힘에 대하여 피이(Gordon D. Fe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하여, 1세기의 성도는 성령이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중략 - 바울도 역시 그렇다. 그는 ‘성령의 힘(롬15:13, 19)’이라는 용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현존은 힘의 현존을 의미한다는 방식 안에서 두 단어를 규칙적으로 사용한다(살전1:5; 고전2:4; 갈3:5; 롬1:4; 엡3:16; 딤후1:7).¹³⁹⁾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힘을 얻고자 했다면, 피이의 언급은 타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를 대적하는 바울은, 강한 자가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준수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였다.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강한 자에게서 약한 자가 자유할 수 있는 힘을 돕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갈3:2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이라고 진술하면서부터 갈6:8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는 진술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령을 진술함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을 통하여 대적자와 대결하고 있기도

138) W. Barclay, *Fresh and Spirit* (Nashville: Abingdon, 1962), 15-16.

139) Gordon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4), 35-36.

하고, 여자 크리스천의 멤버를 고무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¹⁴⁰⁾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세워질 때에는 이미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갈 3:3). 바울 그룹에 포함되는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 약한 자 그룹, 그리고 강한 자 그룹으로 넘어간 사람들 중에 갈라디아 공동체의 멤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의 경험을 바울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⁴¹⁾ 바울이 성령의 경험을 진술하는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의 모든 구성원은 이미 성령에 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미 경험한 적이 있는 바울 그룹과 약한 자 그룹의 성령은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그들을 결속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성령이 여자의 자유를 위한 힘이 되는 것은, 바울이 성령을 약속과 관련하여 진술하는 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여자의 자유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갈4:23), 약속은 성령을 따라 난 자에게 주는 것으로 바울은 진술하고 있다(갈4:29). 그렇기 때문에, 약속과 성령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동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결된 존재로 보기도 한 것이다. 성령과 약속과의 관계를 평은 다음과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약속과 같은 성령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은총이고 약속된 객관적인 힘인 것이 분명하다.¹⁴²⁾

140) *Ibid.*, 371. 피이는 이 책에서 ‘갈라디아서의 논증에서 성령이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 하여 성령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울이 성령을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대적자와 대결하는 중요한 힘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London: SCM, 1977), 453. 샌더스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은 율법준수를 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는 보증인으로서 진술된다고 언급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언급한 피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1) Arthur J. Dewey, *Spirit and Letter in Paul*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6), 53. 듀이는 바울과 다른 선교사들은 이미 성령을 경험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많은 구성원들도 성령을 경험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142)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4.

말하자면 약속은 성령이 하는 일인 것이다. 혹은 성령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갈4:30-31에 ‘자유 있는 여자’라는 진술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여자의 자유를 성령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¹⁴³⁾

갈4:28-31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는 피이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바울은 여자의 자유를 진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갈4:29에서 ‘성령으로 난 자’로 진술하였으며, 갈4:31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갈4:21-31를 구분하는 피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 갈4:24-27에서 ‘어머니’는 성령을 통하여 자유하게 되는 어머니로서, 갈4:28-31에 적용할 수 있다. 갈4:31에 ‘자유 있는 여자’ 사라는 유대인의 어머니기도 하지만, 역시 약속의 자녀에게 어머니이기도 하였다. 약속의 자녀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에 의해서 율법준수를 강요당하는 약한 자 그룹이다. 바울이 율법에서 여자의 자유를 진술하는 것에 대하여 콜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만약 갈라디아서를 쓴 환경을 위한 우리의 복원이 정확하다면, 갈라디아인은 크리스천 자유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바울의 태도는 유대주의의 태도와 예리하게 대조되어 있다: 유대주의자는 여자에게 어떠한 것도 제외할 수 없었다.¹⁴⁴⁾

143) Gordon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413. 피이는 갈4:21-31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갈4:21은 구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꺾박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선동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갈4:22-23은 구약 이야기의 기본적 자료를 드러내고, 갈4:24-27은 두 어머니를 강조하면서 갈4:22-23을 해석하고, 갈4:28-31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상태를 위해 해석을 적용한다.

144) R. A. Cole, *Galatians*, 60.

콜리의 언급대로, 바울이 대적자로 하여금 여자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의 자유는 율법준수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율법준수하지 않는 약한 자 그룹을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상승시키고 있다. 약한 자 그룹에 속하는 여자의 자유는 어머니로 인하여 강한 자에 대결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약속 받은 사람의 어머니로서 여자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것이다.

갈3:14에 ‘약속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약속된 상태에서 약한 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⁵⁾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이며,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로 바뀌어서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약속에 대하여 코스그로브(Charles H. Cosgrov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의 구성원이 되는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⁶⁾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정체성을 성령에서 찾으려고 하였고, 여자는 성령으로 자유하는 경험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코스그로브의 언급은 타당하게 받아들여 진다.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이야말로 율법을 강조하는 강한 자 그룹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

145)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4. 이 책에서 약속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수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특히, 각주 49에서는 성령의 역할과 약속된 성령의 연속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46) Charles H. Cosgrove, *The Cross and The Spirit*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8), 84.

는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로부터 자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 크리스천은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율법을 준수 하라고 강요받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준수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강한 자 그룹의 요구를 비판하고 있다. 그 비판 의 무기로 성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여자 크리스천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는 영적인 자유는 여자 크리스천이 강한 자 그룹에 대결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¹⁴⁷⁾ 바울은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당하는 여자 크리스천에게, 강한 자 그룹의 율법이나 할례의 의식에서 벗어나 성령이 주는 영적 자유를 회복하도록 외치고 있는 것이다.

솔러는 남자와 여자가 갈라디아 공동체 내의 생활과 목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여, 바울이 여자를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남자의 역할과 동등하게 참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솔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순절 날에 여자는 남자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 그래서 여자는 선지자적 권위로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었다.¹⁴⁸⁾

여자가 교회 내에서 성령으로 남자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는 솔러의 주장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도 여자가 성령으로 남자와 동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솔러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여, 구별되고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에 여자의 위치를 남자와 동등하게 올려주고 있는 것이다.¹⁴⁹⁾ 갈라디아 공동체에 약한 자 그룹에 속하였지만,

147) Nobert Baumert, *Woman and Man in Paul*, 181.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 크리스천이 성령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다는 바우메르트의 말은 적절한 표현이다.

148) David M. Scholer, "Galatians 3:28 and the Ministry of Women in the Church," 2.

강한 자 그룹에 동등한 위치에 오른 여자 크리스천을 강한 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에 속해 있는 여자의 위상을 높여 주었다. 여자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울은 암시해 주고 있다. 육신에 속하여 율법준수만을 고집하는 강한 자 그룹이나 남성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여자의 자유를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여자 크리스천의 자유는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고, 약한 자의 자유도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

여자가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것은 갈3:28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의 동등한 관계를 진술하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갈3:28에 진술된 남자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자는 성령을 통하여 남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벳츠는 성령을 통한 여자의 자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갈3:28의 병형 구절인 고전12:13은 고전7:21-24의 내용을 해석한 것이 틀림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한 구성원이다.¹⁵⁰⁾

벳츠의 주장은 타당하다. 갈3:28에서 유대인은 성령을 통하여 헬라인과 하나이고, 종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인 것처럼, 여자도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와

149) *Ibid.*, 7.

150) Hans Dieter Betz, *Galatians*, 193;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157. 롱거넥커가 갈3:28절에서 세 관계를 우선적으로는, 영적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자의 자유는 영적인 자유에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하나가 된다고 바울은 의도하고 있다.¹⁵¹⁾ 여자와 남자가 한 성령을 가진다는 것은, 강한 자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여자가 강한 자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벧츠의 주장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을 통한 여자의 자유를 진술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을 통한 여자의 자유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151)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189. 브루스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새 시대를 열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여자의 제한이 해소되는 것이다. 브루스의 언급에서, 새 시대에는 여자의 제한이 해소되어 여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4 장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

제 1 절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강한 자 그룹에 의해서 갈등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할례로 인식하였다. 할례가 구체적 갈등 요인인 것은, 갈2:2-4에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와 갈라디아 공동체의 내부에서 갈등하는 대적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천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한 이유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내부에 있는 대적자와 구별하기 위해서였으며,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갈등이 표면화되게 하였다. 결국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을 바울은 할례로 제시하였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이 할례를 문제로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거짓복음의 가장 확실한 모양은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다. 할례는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부터 여기 저기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두 번에 걸쳐 이것을 말하고 있다(5:6; 6:15). 율법에 복종하는 것으로써 할례를 강제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바울에게 무엇을 교란하였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혹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본질적이었다.¹⁵²⁾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할례에 관한 입장의 차이라는 것을 말하는 브루스의 주장은 타당하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한 자 그룹의 강요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속의 은총

152)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27.

은 거절당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¹⁵³⁾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강한 자 그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그룹은 직접적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대적자였다. 오히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진술하고 있으므로, 갈라디아 공동체의 대적자는 바울의 대적자로 볼 수 있다. 바울의 대적자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인 것이다.

바울의 전도로 갈라디아 공동체의 성도가 된 이방인 크리스천은 구약성서를 통하여 율법을 알게 되었고, 그 중 어떤 사람들은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받지 않아서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방인 크리스천은 자발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은 할례 받는 것을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바울은 강한 자 그룹이 요구하는 율법준수를 반박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지켜지는 것이다(갈 3:16).¹⁵⁴⁾ 그래서 강한 자 그룹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준수를 하여야 하고, 율법의 한 형식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율법준수와 할례를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도 교육하였다(행 15:1). 그러나 갈라디아 공동체의 이방인 크리스천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갈 3:8)는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153) Karen H. Jobes, "Jerusalem, our Mather : Metalepsis and Intertextuality in Galatians 4:21-31," 299; Hans Dieter Betz, *Galatians*, 90. 벳츠는 율법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보았고, 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보았다. 다음은 벳츠의 주장이다.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은 이방인 크리스천과는 동떨어진 '위선된 크리스천'이고, '위선된 형제들'이다. 유대인 크리스천은 갈 2:21에서 진술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방인 크리스천을 부정한다. 유대인 크리스천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유대인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벳츠의 주장대로라면 유대인 크리스천이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유대화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154) John R. W. Stott, *The Message of Galatians* (Leicester: IVP, 1992), 126. 이 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런 생각은 약속이 강한 자 그룹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방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데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약속을 강한 자 그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하여, 반박하고 있다.¹⁵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강한 자 그룹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갈3:9에서 진술된 대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하여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으로 바울은 진술한다.¹⁵⁶⁾ 전통적으로 율법준수와 할례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왔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진술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한센과 힐(D. Hill)의 주장은 타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율법준수와 할례를 당연히 준행하여야 했고, 준행하여 왔던 강한 자 그룹에게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주장하고자 하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논쟁에 인용한 것은, 아브라함의 율법준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

바울의 강한 대적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으로 행함으로써, 율법준수의 대표적 조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는 율법준수이기 보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브라함을 할례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할례

155) G. Walter Hansen, *Abraham in Galatians*, 199; Herman N. Ridderbos, *Paul* (Grand Rapids: Eerdmans, 1975), 217. 리더보스는 갈4:21-31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령이 할 수 있는 일과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조하기 위해서 논증하였다고 언급한다. 리더보스의 말대로라면 바울이 강한 자 그룹을 비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진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56) David Hill, “Salvation Proclaimed IV. Galatians 3:10-14: Freedom and Acceptance,” *ET* 93 (1982): 197;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492. 샌더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바울이 믿음을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중요한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Jan Lambrecht, “Abraham and His Offspring A Comparison of Galatians 5,1 with 3,13,” *Bib* 80/4 (1999): 526.

를 받지 않고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도, 아브라함은 같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대적자에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획득하게 되는 복은 갈4:15에 진술된 ‘복’을 갈4:13에 ‘처음’에 갈3:22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와 같은 진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울에 의해서 강한 자 그룹에게 반박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한센(G. W. Hansen)은 바울이 강한 자 그룹과 다르게 아브라함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완전한 반전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회심자를 책망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 방법은 바울의 복음과 다른 복음 사이에 있는 분열의 원인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전승의 선택된 특징은 바울의 책망 안에 저주와 반대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공식화되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용함으로써, 믿음/율법행위, 믿음/율법, 그리고 약속/율법처럼 생각의 분열은 바울의 복음과 대적자의 복음을 날카로운 대립으로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바울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유대인 문학에서 아브라함의 공통적인 자화상과는 다른 아브라함으로 표현하는 원인이 되었다.¹⁵⁷⁾

바울이 강한 자 그룹과 유대인이 율법준수와 할례의 약속으로 본보기로 삼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한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157) G. Walter Hansen, *Abraham in Galatians*, 98; E. P. Sanders, “Reflections on Anti-Judaism in The New Testament and in Christianity,” *Anti-Judaism and the Gospels*, ed. William R. Farmer, 272.

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제는 이방인 크리스천이 받게 되리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울이 강한 자 그룹에 반박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 더불어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약속의 자녀 이삭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 받은 내용에 대하여서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이방인 크리스천도 믿음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다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방인 크리스천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 크리스천이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갈3:29에 진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크리스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이다.¹⁵⁸⁾ 바울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손으로서 이방인 크리스천을 진술하는 것은 브루스의 말처럼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대적자의 우월한 상황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을 높여주기 위해서이다.¹⁵⁹⁾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통하여 약속된 자녀는 자유하는 여인의 자손이고, 약속되지 않은 자녀는 종의 자손으로 비교하고 있다. 갈4:28에 ‘약속의’(ejpaggeliva")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갈3:13)를 받게 되는 대적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인하여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갈4:23) 이방인 크리스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게 해 준다.¹⁶⁰⁾ 그렇기 때문에 갈4:28에 ‘이삭과 같이’(kata; !Isaa;k)는 약속의 자녀로서, 갈라디아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중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크리스천은 강한 자 그룹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이라

158) Charles H. Cosgrove, *The Cross and The Spirit*, 96. 코스그로브는 바울이 갈 3:19-22에서 단수 ‘약속’에서 복수 ‘약속’을 사용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로 확장된다고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이 강한 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159)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191.

160)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2. Fung은 약속의 자녀를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223. 브루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는 비유적 진술인 것으로 말하고 있다.

고 언급하는 브루스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¹⁶¹⁾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약속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자유자와 종의 반대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종은 하갈과 이스마엘,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화 된 예루살렘으로 성격이 지워지고 있다. 반면에 자유자는 사라와 이삭, 위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으로 성격 지워지고 있다.¹⁶²⁾ 페리만(Andrew C. Perriman)은 하갈-사라의 관계를 두 언약이라고 말하여 한 언약은 하갈-시내산 율법-현재의 예루살렘-육신에 따라 난 자로 연결되고, 다른 한 언약은 사라-이삭-약속-위에 있는 예루살렘-성령을 따라 난 자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리더보스(H. N. Ridderbos)는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논증한다고 언급하여 평과 페리만의 주장을 돕고 있다.¹⁶³⁾ 갈4:21-31에서 비유로 진술되는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옛 언약은 율법과 관련되고 새 언약은 성령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의 반대적인 관계와 같은 것이다. 율법을 따르고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그룹은 종으로 비유되고, 율법준수보다는 성령에 따라 난 약속의 사람은 자유자로 비유되고 있다. 말하자면, 강한 자 그룹은 종으로 매인 사람이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천은 자유롭다고 하여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진술하고 있다.

갈4:21-31의 진술에서는 자유하는 사람을 약속의 자녀로 말하고 있다.¹⁶⁴⁾ *ejpaggeliva* "tevkna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이다. 약

161)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223. 이 책에서 브루스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162)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2; Andrew C. Perriman, "The Rhetorical Strategy Of Galatians 4:21 5:1," 31.

163) Herman N. Ridderbos, *Paul*, 219; A. Andrew Das, *Paul, the Law and the Covenant*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1), 74-76.

164)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86. 이 책에서 던은 '너희'와 '형제들'과 '약속의 자녀'는 현재 자유를 필요로 하는 약한 자라고 말한다.

속의 자녀는 현재 계집종의 자녀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약속의 자녀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된다고 격려하고 있다(갈3:7).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섞여 있는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이 포함된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도록 강요되고 있었다.¹⁶⁵⁾ 강한 자 그룹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준수를 엄격히 하였고, 옛 약속에 따라 할례를 받아온 유대인과 강한 자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방인 크리스천에게도 할례와 율법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¹⁶⁶⁾

바울은 할례와 율법준수를 통하여 이방인 크리스천을 억제하고 제한하는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이방인 크리스천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였다.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옛 자유이라면,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 자유 회복을 선언하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바울은 새 시대, 새 공동체에 맞는 새 자유 회복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 자유는 이방인 크리스천을 강한 자 그룹에서 ‘자유케 하는(갈5:1)’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¹⁶⁷⁾

제 2 절 성령을 통한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

165) C. K. Barret, *Freedom and Oblig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12.

166) *Ibid.*, 15. 이 책에서 바렛트는 갈라디아 공동체의 유대인 크리스천이 예루살렘 교회와 줄이 닿아서 관련되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실력자 야고보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67) *Ibid.*, 13. 이 책에서 바렛트는 할례가 없이 주어지는 자유는 크리스천이 갖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라고 말한다.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을 제시하고 있다. 성령은 율법준수를 강조하는 옛 전통을 극복하고 새 시대에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힘을 제공한다. 새 공동체를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의 성도가 할례나 모세의 율법에 종이 되지 않도록 경고할 때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¹⁶⁸⁾ 새 시대, 새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자유는 율법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이고 역사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옛 공동체는 율법에 속하여 율법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였지만, 새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이므로 율법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¹⁶⁹⁾ 여기서 갈라디아 공동체가 회복하여야 할 자유가 성령이 주는 영적 자유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갈4:29에서 kata; savrka와 kata; pneu'ma가 대립되는 두 관계로 설정되고 있다.¹⁷⁰⁾ 이런 관계는 갈4:21에 uJpo; novmon와 4:23에 di! ejpaggeliva"의 관계와 비교되는 것이기도 하다.¹⁷¹⁾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싸우는 것을 통하여 '육체'와 '성령'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싸우고 있는 두 그룹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¹⁷²⁾ 더 나아가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불합리한 공동체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갈4:29). 성령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육체를 따라 난 자'를

168) Rudolph H. Blank,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242.

169)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202.

170) *Ibid.*, 213. 이 책에서 러셀은 육은 할례에 의해서 구별되고 율법에 의해서 억제되며, 영은 약속에 따라 새 자유를 준다고 말한다.

171) F. F. Bruce, *Commentary on Galatians*, 223.

172)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2. 이 책에서 러셀은 육신을 따라 난 자는 옛 전통을 고수하는 자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라고 말한다; Andrew C. Perriman, "The Rhetorical Strategy Of Galatians 4:21-5:1," 36-37. 이 책에서 페리만은 하갈-사라의 비유적 이야기와 현재 갈라디아 공동체의 상태 사이는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말한다; Karen H. Jobes, "Jerusalem, our Mather : Metalepsis and Intertextuality in Galatians 4:21-31," 301. 이 책에서 갈4:21절과 4:18절의 구절을 비교해 볼 때에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율법을 보는 시각이라고 말한다.

비판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다. 영에 대한 바울의 입장에 대하여 서중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편, 영에 대한 바울의 강조도 육(역사적 예수의 육을 포함하여)의 의미를 제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 중략 - 바울은 “육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고전15:43), 또는 “육의 몸”과 “영의 몸”(고전15:44), “흠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고전15:49)을 대조시키면서, - 중략 - 더 나아가 바울은 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결정적인 타격이 될만한 선언을 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전15:50).¹⁷³⁾

바울이 성령으로 강한 자 그룹에 대하여 대적하고, 대적자의 활동을 무효화시키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서중석의 주장은 타당하다.

‘육체를 따라 난 자’(kata; savrka)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낸 것, 그리고 부활에서 멀리 떨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육체에 난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다(갈5:3).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육신에 속한 자를 러셀(W. B. Russell)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고 인도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¹⁷⁴⁾ 모세의 율법은 어렸을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갈4:1),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갈3:19-22)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에 일치하기 위하여 외형적 의식인 할례를 강요하였던 것이다(갈5:11-12, 5:12-13). 바울은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을 ‘육체를 따라 난 자’로 상정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자유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한다(갈5:6).

‘성령을 따라 난 자’(to:n kata; pneu'ma)는 육신에 난 자에게 핍박을 받고

173)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27.

174) Walter B. Russell III,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3.

있는 크리스천이다. 약속으로 난 자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로 난 자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현재 이방인 크리스천이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자 그룹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갈4:29). 그러므로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천은 약속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로 진술되고 있다는 핑의 언급은 타당하다.¹⁷⁵⁾ 갈4:29에 ‘이제도 그러하도다(ou{tw" kai; nu'n)’는 현재 성령에 속한 사람이 육체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¹⁷⁶⁾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갈1:23). 이전에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핍박을 하고 있는 내용을 암시해 주고 있는 구절로 갈4:13-14절에서도 볼 수 있다.¹⁷⁷⁾ 그러나 강한 자 그룹이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위협하거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바울이 크리스천을 핍박하여 포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는 것과 같은 핍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갈5:11에서 진술된 ‘핍박’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직면한 바울의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4:13)을 실제로 몸이 아픈 경우를 말할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밀려오는 율법준수의 위협으로 보는 것이

175)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4.

176) Hans Dieter Betz, *Galatians*, 250. 벳츠는 이 책에서 현재 갈라디아 공동체가 핍박받는 것은 바울이 한때 크리스천을 핍박하였던 것처럼 유대인이 크리스천을 핍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R. Jewett, “The Agitators and the Galatians Congregation,” 205. 주월은 갈라디아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주후 40년 후반에서 50년 초반에 영지주의적 운동을 하는 열심당원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말한다. 이것을 갈3:4에서는 ‘이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느냐’(tosau'ta ejpavqete)와 갈5:11에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e[ti diwvkomai)의 두 곳에서 보여주는 핍박을 갈라디아 공동체의 약한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핍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John R. W. Stott, *The Message of Galatians*, 127. 이 책에서 스톡은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의 약한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와 성직자와 교회 관계자라고 말하고 있다; Frank J. Matera, *Galatians*, 171. 이 책에서 마테라는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핍박하는 자는 교회 내의 강한 자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서 핍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177) Troy W. Martin, “Whose Flesh? What Temptation?,” 79.

더 적절하다.

‘육체의 약함’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갈4:14절에 ‘시험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자 그룹은 약한 자 그룹에 속하는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할례를 강요하여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육체의 약함’ 것으로 보고,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한 것처럼 지금도 약자인 이방인 크리스천이 강한 자 그룹에게 자유와 안전에 위협을 당하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이러한 정황을 두고 Fung은 ‘유대교 전승’을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¹⁷⁸⁾

강한 자 그룹은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율법준수를 요구하고 할례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육체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육체에 속한 자에 넘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비록 현재 육체에 따라 난 자들의 핍박과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방인 크리스천이 할례와 율법준수를 요구하는 강한 자 그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강한 자와 대결하여 그들의 힘을 이겨내야 한다. 육체를 따라 난 자로 표현된 강한 자 그룹을 능가하는 힘은 성령을 필요로 한다.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할례를 하지 않는 약한 자인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성령의 능력을 의존할 것을 진술하고 있다. 성령이 이방인 크리스천을 자유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바울의 진술에 대하여 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령은 역시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은 행 10:44-48; 11:15-18; 15:8-9를 통하여 초기 크리스천에 관하여 진술하는

178)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3.

누가에 의해서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은 핵심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이방인 크리스천을 향한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¹⁷⁹⁾

성령을 통하여 이방인 크리스천은 자유하게 된다는 던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바울이 성령은 율법준수와 할례를 강요하는 강한 자 그룹에 대결하는 이방인 크리스천의 강력한 힘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으로부터 바울의 주된 논쟁이 시작되는 것에서,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갈3:1-5). 성령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에 일치하게 하고, 성령은 이방인 크리스천에게 이미 미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기도 한다(갈3:14). 바울의 진술에 따르면, 이방인 크리스천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식된다. 왜냐하면 이방인 크리스천은 ‘성령을 따라’ 난 이삭과 같기 때문이다(갈4:29). 그들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짐을 지고 있고,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성령을 통한 영적 자유라는 명분으로 강한 대적자와 대결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율법준수와 할례가 갈라디아 공동체의 갈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 원인을 제시하는 대적자에게 바울이 성령이라는 방안으로 대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대적자와 대결하고자 하는 바울의 또 다른 의도는 자신의 사도권 강화에 있다. 바울의 사도권은 바울 그룹뿐만 아니라, 이방인 크리

179) James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416-419. 이 책에서 던은 갈2:8-9를 인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천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승인한다고 말하지만, 2:8-9의 진술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방인 크리스천을 받아들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 바울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스천도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단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대적자로 보고 있다는 조오지의 주장은 타당하다.¹⁸⁰⁾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신의 사도권 강화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영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였다.¹⁸¹⁾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는 다른 사도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그의 사도권을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권 개념을 희망하였다고 하는 쇠프스(H. J. Schoeps)의 주장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의도를 잘 말하고 있는 것이다.¹⁸²⁾ 갈1:1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을 진술하고 있다. 바울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도가 된 것을 암시한다. 갈1:16-17에서 바울은 ‘사람’과

180) Timothy George, *Galatians*, 57; Joseph B. Tyson, “Paul’s Opponents in Galatia,” 243. 이 책에서 타이슨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것은 그의 사도권을 확고히 하고, 그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그의 대적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방어를 위한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C. K. Barret,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Harper & Row, 1973), 6-7. 바렛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의 경쟁적 사도들이라고 언급하여 바울의 대적자는 사도권과 관련된 것을 암시한다.

181) James D. G. Dunn,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18; 유상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261-263. 유상현은 행15장과 갈2장 묘사의 차이에서 바울의 사도권 옹호를 언급한다. 유상현은 행15장과 갈2장의 차이에 대하여 다음 항목으로 말한다: 바울의 이방선교와 관련하여 그의 선교 영역을 인정했는가 여부, 예루살렘 회의 참석에 대해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의 독자성이고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갈2장에서 모임이 성격이 ‘유명한 자들, 기동같은 자들’로 진술되어 사적인 회합의 인상인 반면에 행15장에서는 이보다 규모가 큰 전체 교회의 공적인 모임과 두 차례의 모임 등이다; William Hendriksen, *Galatians*, 15. 이 책에서 헨드릭센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발생한 구체적 상황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이라는 교리를 새롭게 인식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교리라는 측면에서 믿음은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갈라디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믿음이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문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직이라면 헨드릭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82) H. J. Schoeps, *Paul*, 71.

같은 의미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바울의 사도권과 다른 의미인 혈육으로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람’과 ‘혈육’으로 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과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되었다는 독특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쇠프스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 개념을 위해서 계시적이고 더 넓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¹⁸³⁾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람’과 ‘혈육’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역사적 예수에 근거한 권위라면, 바울이 제시한 새로운 사도권의 개념에 대해서 서중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면 원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의 근거로 내세운 ‘역사적 예수와의 관련성’에 맞서기 위해 바울이 내세운 색다른 품목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계시’와 ‘은혜’와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 부활’이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갈1:12)’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것이 ‘계시’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갈 2:1). 바로 이 ‘계시’는 역사적 예수와 만남이 없었던 바울에게는 원 사도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품목이었다. 바울이 계시보다 더 빈번히 사용한 용어는 ‘은혜’이다. ‘은혜’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57회 정도 나타난다. 이것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마태나 마가에서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¹⁸⁴⁾

183) *Ibid.*, 72.

184)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25; Gordon D. Fee,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371. 바울은 ‘계시’가 ‘성령의 행위’라고 말한 것도 역시, 자신의 사도권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피이의 주장은 타당하다; J. C. Beker, *Paul The Apostle*, 44. 역사적 예수와 관련하여, 베커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역사적 예수의 제자들로서 자신들만이 교회 안에서 사도권이 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새로운 성전의 개념으로서 사도권을 제시하여야 했다고 말한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다른 의미를 가진 사도권을 위해서 바울이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였다고 하는 서중석의 주장은 타당하다. 성령을 통한 바울의 영적 자유는 바울의 사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제시한 사도의 기준을 비판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성령을 통한 영적이 자유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신의 사도권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사도권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바울도 사도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자 하였다.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바울의 사도권 독립 사이에 균형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던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¹⁸⁵⁾

바울의 영적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는 달리 성령을 통하여 사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울이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과거의 전통이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과거 전통의 산물인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더 넓은 지역과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체는 할례와 율법준수에 제한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

갈5:1에 ‘종의 멍에(zugw'/ douleiva)’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복종하여야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¹⁸⁶⁾ 이 종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라고 말한 것은

185) James D. G. Dunn, *Jesus, Paul and the Law*, 114.

186) Ronald Y. K. Fung,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217. 이 책에서 Funk는 유대화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고 있다고 말한다. 종이 억지로 주인의 말을 듣고 짐을 져야 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공동체의

과거에 성령으로 인하여 종의 멍에를 벗었던 상태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종의 멍에를 벗었던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again, pavlin)라고 쓴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적자가 강요하는 율법으로 인하여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바울은 율법으로 인하여 종의 멍에를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죄로 인한 종의 멍에와 동일한 것으로 진술하기 위하여 ‘다시’를 사용하였다고 하는 롱거넥커의 언급은 일부분 받아들여 질 수 있다.¹⁸⁷⁾ 왜냐하면 과거에 죄에서 크리스천으로 자유하였던 것처럼 현재 율법에 매인 종으로부터 자유하여 미래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울은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⁸⁾ 새 시대, 새 공동체에서 새 생활을 하는 자유자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힘입은 갈라디아 교인은 율법과 육신에 반대하여 새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진다.¹⁸⁹⁾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한 바울의 영적인 자유는 대적자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확실한 방안이 되는 것이다.

성도들도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되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187) Richard N. Longenecker, *Galatians*, 224. 이 책에서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했던 때에 우상숭배로 자유롭지 못한 때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하는 데에서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에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종의 멍에와 현재 율법준수로 인한 종의 멍에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롱거넥커의 말은 일부분 적절하다.

188) Gordon D. Fee, “Freedom and the Life of Obedience,” *RE* 91 (1994): 202-206. 이 책에서 피이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종을 새로운 형태의 종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유를 회복하는 현재의 모습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에서 찾아진다(갈5:13-15). 이 단락에서 종은 율법에 매여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가 서로 섬김으로서 사랑하는 종이 되는 것이다; Rudolph H. Blank,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243. 이 책에서 크리스천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가질 수 있고,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자유를 잃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Molly T. Marshall, “Galatians 5:1, 13-14 : Free Yet Enslaved,” 235. 이 책에서 마샬(M. T. Marshall)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 사회적 병을 고치는 대변혁이라고 하여 갈라디아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Helen Doohan, *Paul's Vision of Church*, 170-172.

189) Gordon D. Fee, “Freedom and the Life of Obedience,” 202. 피이는 성령으로 힘입어 바울의 권고대로 살아가는 새 삶이 바울의 새로운 윤리라고 말한다.

제 5 장 결 론

자유는 인간을 위한 내용 중에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이다. 자유는 인간의 긴 역사에서 오랫동안 있어 왔고, 많은 희생과 비용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었다. 정치와 이념의 운동에서처럼, 갈라디아 공동체의 크리스천 그룹들도 새롭게 세우려는 자유의 의미를 위하여 힘써 노력하고 있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서신을 보내면서, 강한 자 그룹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약한 자 그룹에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의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는 강한 자 그룹과 약한 자 그룹, 그리고 중도적 입장에 있는 중도 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한 자 그룹은 율법준수를 강요하였고, 약한 자 그룹은 율법준수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중도 자 그룹은 율법을 준수한 크리스천과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준수를 하는 크리스천을 수용하면서도,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강한 자를 비판하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약한 자들인 여자나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를 위해서 지원하였고, 자유를 위한 방법으로 성령을 통한 영적이 자유를 제시하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강한 자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을 포함하는 유대화 된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화 된 강한 자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여, 갈라디아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그룹이 강한 자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지원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원을 받는 그룹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지원 받은 강한 자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 내에 있는

약한 자 그룹에게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였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서 약한 자 그룹은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한 자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활동에서 제한을 받았다. 강한 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에게 지원 받는다면, 바울은 약한 자 그룹을 지원하고 있다.

여자의 자유는 갈4:21-31에서 자유와 여자의 관계를 직접적 언어로 표현되고, 갈3:28에서 남성과 대등한 관계로 진술되는 곳에서 드러난다. 갈4:4-5에서는 여자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을 진술하여, 여자를 강한 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았다. 갈4:24에서 바울은 언약을 여자와 동일시하고, 갈4:26에서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자유는 ‘어머니’라고 진술하여, 어머니로서 여자의 자유를 제시한다.

이방인 크리스천의 자유는 할례와 율법준수에 관련하여 진술된다.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는 강한 자 그룹에 의해서 할례와 율법준수가 강요되고 있었다. 강한 자 그룹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준수를 주장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할례와 율법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고 진술하여 이방인 크리스천을 지원한다.

강한 자로부터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이 자유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이다. 성령은 갈라디아 공동체가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준수를 강요하는 강한 자 그룹과 구별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갈3:3). 강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이므로 율법에 복종하기 위하여 외형적 의식인 할례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바울은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이 성령을 통하여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것을 진술한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자유는 바울의 사도직과도 관련된다. 바울은 예루살

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이 제시한, 사도가 되는 기준에 바울이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인정받지 못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갈라디아 공동체 내부에 있는 대적자를 지원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와 사도들을 비판하고 있다.

바울은 사도직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이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자유이다. 바울이 사도직을 확보하고 약한 자 그룹이 강한 자 그룹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공동체는 연합하게 할 수 있었고, 이방 선교를 하고자 하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전통에 매이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을 바울은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대적자에 대한 바울의 비판은 사도직과 율법준수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와 더불어 갈라디아 공동체와 이방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하는데도 있었다. 바울의 역할 강화는 사도직이 확보되고 강한 자를 제어하는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제적 힘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바울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 그룹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이며, 바울은 이들을 추켜세우고 있다. 갈라디아 공동체의 강한 자 그룹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사도들과는 달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약한 자 그룹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직과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 바울은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여자와 이방인 크리스천을 추켜세우고, 그들의 지원으로 바울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 것이다.

참 고 도 서

- Beker, J. C. *Paul The Apostle*. Edinburgh: Fortress Press, 1980.
- Barclay, W. *Fresh and Spirit*. Nashville: Abingdon, 1962.
- _____. *The Letters to the Galatians and Ephesian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 Barret, C. K. *Freedom and Obliga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 _____.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New York: Harper & Row, 1973.
- Baumert, Nobert. *Woman and Man in Paul*.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6.
- Baur, F. C. "Die Christuspartei in der korinthischen Gemeinde." *TZT* (1831): 61-206.
- Betz, Hans Dieter. *Galatia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Blank, Rudolph H. "Six Theses Concerning Freedom in Christ and Liberation: Liberation in Galatians, Luther, and Liberation Theology." *CJ* 20 (July, 1994): 236-260.
- Bruce, F. F. *Commentary on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0.
- Cole, R. A.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91.
- Cosgrove, Charles H. *The Cross and The Spirit*.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88.
- Cranford, Lorin L. "A Rhetorical Reading of Galatians." *SwJT* 37/1 (Fall, 1994): 4-10.
- Crownfield, F. R. "The Singular Problem of the Dual Galatians." *JBL*

- 63(1945): 491-500.
- Das, A. Andrew. *Paul, the Law and the Covenant*. Massachusetts: Hendrickson, 2001.
- Dewey, Arthur J. *Spirit and Letter in Paul*. Lampeter: The Edwin Mellen Press, 1996.
- Doohan, Helen. *Paul's Vision of Church*. Wilmington, Delaware: Michael Glazier, 1989.
- Dunn, James D. G. *Jesus, Paul and the Law*. London: SPCK, 1990.
- _____.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3.
- _____.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 _____. "The Incident at Antioch (Gal. 2:11-18)." *JSNT* 18 (1983): 3-57
- Ellis, E. Earle. "Paul and His Opponents." *Prophecy and Hermeneutic in Early Christianity*. Grand Rapids: Eerdmans, 1978.
- Elliott, Susan M. "Choose Your Mother, Choose Your Master : Galatians 4:21-5:1 in the Shadow of the Anatolian Mother of the Gods." *JBL* 118/4 (1999): 661-683.
- Fee, Gordon D. "Freedom and the Life of Obedience." *RE* 91 (1994): 201-217.
- _____. *God's Empowering Presence: The Holy Spirit in the Letters of Paul*. Massachusetts: Hendrickson, 1994.
- Fung, Ronald Y. K. *The Epistle to the Galat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9.
- Gench, Frances T. "Galations 5:1, 13-25." *Int* 46/3 (Jul, 1992): 290-295.

- George, Timothy. *Galatian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 30: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 Hall, Robert G. "Arguing like an Apocalypse : Galatians and an Ancient TOPOS OUTSIDE the Greco-Roman Rhetorical Tradition." *NTS* 42 (1996): 434-453.
- Hansen, G. Walter. *Abraham in Galatians*. Sheffield: JSOT Press, 1989.
- Hendriksen, William. *Galatians*. Grand Rapids: Baker House, 1990.
- Hengel, Martin and Schwemer, Anna Maria. *Paul: Between Damascus and Antioc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Hill, David. "Salvation Proclaimed IV. Galatians 3:10-14: Freedom and Acceptance." *ET* 93 (1982): 196-200.
- Holmberg, Bengt. *Paul and Pow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8.
- Howard, G. *Paul: Crisis in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nd edition 1990.
- Jewett, R. "The Agitators and the Galatians Congregation." *NTS* 17 (1971): 198-212.
- Jobes, Karen H. "Jerusalem, our Mather : Metalepsis and Intertextuality in Galatians 4:21-31." *WTJ* 55 (1993): 299-320.
- Kee, Howard C. 『새 시대의 공동체』 서중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 Kern, Philip H. *Rhetoric and Galatia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Lambrecht, Jan "Abraham and His Offspring A Comparison of Galatians 5,1 with 3,13." *Bib* 80/4 (1999): 525-536.
- Lea, Thomas D. "Unscrambling the Judaizers: Who Were Paul's Opponents?" *SwJT* 37/1 (Fall, 1994): 23-29.

- Lightfoot, J. B.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London: Macmillan, 1890.
- Longenecker, Richard N. *Galatians*.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0.
- Luedemann, Gerd. *Opposition to Paul in Jewish Christian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Luther, Martin. *Commentary on Epistle to the Galatians*. London: Fleming H. Revell Company, 1957.
- Marshall, Molly T. "Galatians 5:1, 13-14 : Free Yet Enslaved." *RE* 91(1994): 233-237.
- Martin, Troy W. "Whose Flesh? What Temptation?." *JSNT* 74 (1999): 65-91.
- Martyn, J. Louis. *Galatians*. New York: Doubleday, 1997.
- _____. *Theological Issues in the Letters of Paul*.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Matera, Frank J. *Galatians*.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2.
- Mcclane, Curtis D. "The Hellenistic Background to The Pauline Allegoric Method in Galatians 4:21-31." *RQ* 40/2 (1998): 125-135.
- McGonigal, Terrance D. "'Abraham Believed God': Genesis 15.6 and its Use in the New Testament". Ph.D.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81.
- Morris, L. *Galatians*. Downers Grove: IVP, 1996.
- Munck, J. *Paul and the Salvation of Mankind*. London: SCM, 1959.
- _____. "Jewish Christianity on Post-Apostolic Times." *NTS* 6 (1960): 103-116.
- Neil, William. *The Letter of Paul to The Galati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Neusner, Jacob. *Judaism in the Beginning of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O'Neill, J. C. "The Holy Spirit and the Human Spirit in Galatians." *ETL* 71/1 (1995): 107-117.
- Pelser, G. M. M. "The Opposition Faith and Works as Persuasive Device in Galatians (3:6-14)." *Neot* 26/2 (1992): 389-405.
- Perriman, Andrew C. "The Rhetorical Strategy Of Galatians 4:21 5:1." *EQ* 65/1 (1993): 27-42.
- Phillip, Arnold J. *Jewish Christianity in Galatians : A study of the teachers and their gospel*. Ann Arbor: UMI, 1991.
- Ridderbos, Herman N. *Paul*. Grand Rapids: Eerdmans, 1975.
- _____. *The Epistle of Paul to the Churches of Galatia*. Grand Rapids: Eerdmans, 1984.
- Russell, Walter B. III. "Rhetorical Analysis of the Book of Galatians, Part 1." *BS* 150 (July, 1993): 341-358.
- _____. *The Flesh / Spirit Conflict in Galatians*.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7.
- Sanders, E. 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London: SCM, 1977.
- _____. "Reflections on Anti-Judaism in The New Testament and in Christianity," *Anti-Judaism and the Gospels*. Edited by William R. Farmer.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 Schmithals, W. *Paul and James*. London: SCM Press, 1965.
- _____. "The Heretics in Galatia." *Paul and the Gnostics*. Nashville: Abingdon, 1972.
- Schoeps, H. J. *Pau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 Scholer, David M. "Galatians 3:28 and the Ministry of Women in the

- Church.” *CQ* 56 (Aug, 1998): 2-18.
- Stott, John R. W. *The Message of Galatians*. Leicester: IVP, 1992.
- Sumney, Jerry L. *Identifying Paul's Opponents: The Question of Method in 2 Corinthians*. Sheffield: JSOP Press, 1990.
- Tyson, Joseph B. “Paul's Opponents in Galatia.” *NouT* 10 (Oct, 1968): 241-254.
- Williams, Sam K. *Galatian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White, John L. *The Form and Function of the body of the Greek Letter. A Study of the Letter-Body in the Non-Literary Papyri and in Paul the Apostl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2. Missoula: Scholars Press, 1972.
- Wiles, Maurice. *The Divine Apost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 Young, Norman H. “Who's cursed - and Why? (Galatians 3:10-14).” *JBL* 117/1 (1998): 79-92.
- 서중석. 『바울서신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_____. 『복음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유상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_____. 『사도행전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_____. “예루살렘의 야고보.” 『신학논단』 22 (1994): 93-113.

Abstract

The Freedom of the Weak in Galatians

Kim, Seong Jo

Dept. of Theology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Paul wrote about his thought for the Freedom of the Weak Group oppressed by the Strong Group in his letter, which was sent to the Galatian Community. The Galatian Community consists of the Strong Group, the Weak Group, and the Moderation Group. The Moderation Group were in a moderated position. The Strong Group forced the Weak Group to obey the Law, but the Weak Group denied it. And the Moderation Group included two types of Christian; Christians who obey the Law and those who don't. Paul intended to address the Freedom of Women and the Gentile Christians. He presented the spiritual freedom through the Spirit as a way for the freedom of these people.

The Jewish Christian and the Judaized Christian including the Gentile Christian were in the Strong Group. The reason why they could be the Strong Group was because they were supported by the leaders of the Jerusalem Church and the apostles. The Strong Group who was supported by the leaders of the Jerusalem Church and the apostles compelled the Weak Group to be circumcised and to observe the Law.

The Weak Group consisted of women and the Gentile Christians. The Weak Group were not only compelled to be circumcised and to observe the Law but also restricted them to act in the community. The Weak Group was supported by Paul, while the Strong Group was supported by the leaders of the Jerusalem Church and the apostles.

In Galatians, there are several phrases that describe the Freedom of the Woman: In Gal4:21-31, it literally talk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and the woman, and in Gal3:28, it reveals the Freedom of the Woman by addressing their equal position to the man. In Gal4:4-5, it raises the position of women higher than the Strong's position by saying that 'the Son of God' was born by a woman. Paul equalizes the Woman with the covenant in Gal4:24, and he presents the Freedom of the Woman as a mother, addressing that 'Jerusalem' is 'the free' and the Freedom is 'a mother'.

The Freedom of the Gentile Christian was addressed in connection with the circumcision and the Law-observance. Circumcision and the Law-observance was compelled by the Strong Group in the Galatian Community. The Strong Group insisted on circumcision and the Law-observance to keep Abraham's promise, but Paul supported the Gentile Christian by addressing that Abraham's promise has nothing to do with circumcision and the Law-observance, but about faith.

The way Women and the Gentile Christians can be free from the Strong is through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s already experienced by the Galatian Community, Paul could distinguished the Weak Group from the Strong Group(Gal3:3). Because the Strong is 'born in the flesh', he compels the circumcision as an external cult in order to obey the Law.

But because Women and the Gentile Christians are 'born in the Spirit', they can not obey the circumcision and the Law. Paul addresses that Women and the Gentile Christians can be free through the Spirit.

The spiritual freedom through the Spirit is related to Paul's apostleship. Paul was not authorized by the leaders of the Jerusalem Church and the apostles of his apostleship. It was because Paul was not fitted by the qualities that the leaders of the Jerusalem Church and the apostles presented for becoming an apostle. Paul presented a new standard that was related to the apostleship, and it was the spiritual freedom through the Spirit. Ensuring the apostleship, Paul took on himself the power for the Gentile mission. Also the Weak Group obtained the freedom from the Strong Group, Paul took it on. And Paul presented a new thought that matched with a new age rather than binding it to the past tradition.

Key Words : Galatian Community, Freedom, the Strong Group, circumcision, the Law-observance, the Weak Group, the Woman, Gentile Christian, the Spirit, Paul's apostleship.